

濟州島 牧者服 研究

金 義 淑

目 次

- | |
|-----------------|
| I. 序論 |
| II. 濟州島 牧者의 生活相 |
| III. 牧者服의 종류 |
| IV. 結論 |

I. 序 論

1. 研究의 背景과 目的

濟州島는 자연적·역사적으로 특수한 환경을 유지·보존하고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韓國 本土와 떨어져 있는 섬이면서, 中國·日本과 왕래하기 좋은 징검다리과 같은 지리적 조건, 그리고 高麗때 蒙古 영향하에서 牧馬場으로서의 지명도 및 元宗 12년(1271)부터 1세기 동안의 지배, 朝鮮朝 流配地로서의 歷史, 仁祖時代 이래 2세기 동안 (1629~1830)의 出陸禁止令으로 인한 고립 등의¹⁾ 역사적 환경으로 인하여

1) 高富子, "濟州服飾의 어제와 오늘," 《濟州島》 Vol.80. 濟州道, 1986.8. p.114.

濟州島는 韓國 本土와는 다른 風俗이 남아 있다.

衣生活에 있어서도 近來까지 韓國 本土와는 다른 濟州島 特有的 경향이 남아 있다. 즉, 牧者들이 입는 가죽옷, 農夫들이 입는 갈옷, 潛女들이 잠수할 때 입는 물소중이와 같은 노동복류가 바로 그것이다.

高富子는 濟州島의 服飾構造를 京樣式과 濟州樣式의 服飾이라는 二重構造로 보고 있는데, 京樣式은 陸地部에서 官職으로 任命되어 온 上層 支配階級 및 그 家族들, 또한 流配者와 濟州島 土着民으로 官員이 되어 中央行政의 혜택을 입은 계급이 입었던 服飾이고, 濟州樣式은 濟州土着民으로 庶民階級 사이에서 생겼던 服飾生活 形態를 말한다. 官員服(下吏), 儀禮服, 新郎·新婦服, 壽衣(호상옷)는 京樣式, 乳兒服(初年兒), 農夫服(褲下衣類: 갈옷), 海女服, 牧者服(수렵복), 무당옷은 濟州樣式의 服飾類라 할 수 있다.²⁾ 또한 濟州島의 자연적 환경에 따라 濟州樣式의 服飾類는 北方系와 南方系 服飾으로 구분되는데, 漢拏山을 중심으로 牧畜을 主業으로 하면서 中山間 地方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던 牧者들이 입었던 짐승의 털과 가죽을 재료로 하여 만든 옷을 北方系 服飾으로, 해안지방에서 漁業을 主業으로 하던 사람들에게 입혀졌던 해너복인 물소중이는 南方系 服飾으로 분류하고 있다.³⁾

1971년 高富子를 필두로 시작된 濟州島 服飾 研究는 많은 관심을 증대시키면서, 최근에는 蒙古 服飾과의 연관성⁴⁾까지 거론되고 있다.

1980年代에 들어와서 세부적인 服飾 研究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高富子는 通過儀禮服, 호상옷·喪服 등을⁵⁾ 玄惠景, 김정숙은 해너복 등을⁶⁾

2)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島編〉,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4, pp.215~217.

3) 高富子, “濟州島 服飾의 民俗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71.

4) 孫敬子, “韓國·蒙古 服飾의 相關性 研究：服飾의 樣式 比較를 中心으로,” 《服飾》 14호, 한국복식학회, 1990.5.

5) 高富子, “濟州島 通過儀禮服의 研究,”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0.; 高富子, “濟州島民의 喪禮에 나타난 服飾：호상옷과 喪服,” 《제주도연구》 제2집, 제주도연구회, 1985, pp.101~143.

6) 玄惠景, “濟州島 服飾에 관한 研究：海女服과 農民服(갈옷)의 實物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수도여자사범대학 대학원, 1977.; 김정숙, “濟州島

濟州島 牧者服 研究

研究함으로써 濟州島 服飾의 民俗學的 研究가 활발히 進行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牧者들이 입었던 牧者服에 대한 구체적인 研究는 미비한 상태이다. 더욱이 牧者服의 제작과 착용경험을 지닌 古老들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牧者服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려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濟州島 牧者服을 자료가 닿는 대로 종합·정리함으로써 濟州島 服飾 및 韓國 服飾 研究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研究方法, 研究範圍 및 制限點

문헌자료 고찰과 유물 고찰, 그리고 濟州島 古老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진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濟州島 牧者服의 종류와 재료, 구성, 착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고, 본 논문은 牧者들의 生活相과 牧者服의 종류 및 용도, 재료, 구성, 착용방법을 파악하는 순으로 전개되었다.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이 된 牧者는 濟州島 中山間 마을에서 牧畜을 主業으로 하면서 農事도 하던 사람으로서 牛馬를 소유하고 있는 牧畜業者, 관청의 牛馬를 돌보던 牧子, 그리고 일정기간 牧畜業者의 牛馬를 관리하던 테우리를 포함한다. 또 이러한 牧畜은 男子들의 일이므로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牧者服은 中山間 마을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던 男子들의 服飾이라 할 수 있다.

문헌자료는 주로 1970年 이후 쓰여진 論文이 대부분이고, 1930年代 日本人들에 의해 조사·정리된 것에 불과하여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유물은 시기적으로 조선 말엽부터 1950年代까지 입었던 종류를 고찰하였으며, 濟州大學校 博物館과 濟州道 民俗自然史博物館의 전시품과 소장품이다. 유물의 상태는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실이 된 것도 있었다.

濟州島의 牧者들 중 牧子生活를 하였던 古老들은 1910年 韓日합방 이후

海女服 研究.” 〈耽羅文化〉 10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pp.53~142.

신분제도의 해체로 사라져버렸고, 牧者服類를 만들던 古老들 또한 거의 사망하여 구체적인 제작방법의 조사가 어려웠다. 또한 면담 古老들은 모두 직접 牧者服類를 착용한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단지, 과거에 제작과정을 눈으로 보아서 알고 있는 그 기억들을 토대로 본 연구자의 면담에 응하였으므로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1948年 4·3사건 때 많은 유물이 소실됨으로 인해 현재 남아있는 유물에 대한 정확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服飾類의 명칭은 濟州島에서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韓國 本土에 있는 종류는 부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濟州島에만 있는 것은 濟州方言으로 포기하였다.

II. 濟州島 牧者의 生活相

1. 牧者의 身分

現在 濟州島에서 사용되는 牧者란 용어는 牧子의 身分으로 高麗 이래로 國家의 말을 看養하던 사람들, 濟州島 中山間 마을을 中心으로 牧畜을 主業으로 하면서 農事도 하던 牧畜業者들, 그리고 牧畜業者들의 말을 일정기간 동안 달아서 돌보던 테우리들을 포함시킨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三國時代 이래 牛馬匹 생산에 종사하던 자들은 사회 최하층에 속하는 奴子들이었는데⁷⁾ 高麗가 元의 지배하에 들어간 후 元에 의해서 牧場이 세워지고 또한 蒙古의 馬匹과 飼育 專門家인 牧胡가 와서 본격적으로 牧馬 事業을 추진하게 되자, 이에 영향을 받아 恭愍王 16년경부터 종래의 奴子를 牧子라 부르게 된 데서 牧子라는 칭호가 由來된 것으로⁸⁾ 보이고 牧子라 함은 말을 맡아서 이것을 牧養하는 자를 말한다.⁹⁾ 奴子が

7) 南都泳, “韓國牧子考,” 《東國史學》 제8집, 동국대사학회, 1965, p.32

8) 南都泳, “韓國牧場制度考,” 《東國史學》 제11집, 동국대사학회, 1969, p.35.

9) 李 健, 《濟州風土記》

牧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적어도 馬匹飼育 技術面에서나 社會的인 계급면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의미한다.¹⁰⁾

牧子は 원칙적으로 16세에서 60세까지 國馬看養이란 일에 종사하고 그 이후는 免役의 자유가 부여되었다. 牧子의 사회적 신분은 良民으로 적어도 國家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官吏的 성격을 띤 존재이나 실제로는 奴婢와 같은 지위를 면하지 못하였으며, 세습적으로 子孫에게까지 전하여지는 것이 통례였다.¹¹⁾

牧子의 직책에 있는 사람은 各 牧馬場에 배치되어 28匹 내지 29匹의 牛馬飼育을 책임맡아 매년 20匹(후에 21匹~22匹)의 慈息을 생산하고, 牛馬草料 및 各種 土産物을 國家에 바치며 牧馬軍으로 服務를 하는 것이었다. 1年間 慈息 20匹(후에 21匹~22匹) 이상을 얻으면 上等, 15匹(후에 16匹~17匹) 이상이면 中等, 15匹 미만일 때는 下等으로 평가하여 30개월 단위로 그 성적을 평가 상을 3회 이상 받으면 승진되고, 中을 3회 이상 받으면 좌천 또는 과면되고, 下를 받으면 治罪되었다.¹²⁾

濟州島의 경우 목마장을 열소장(10所場)으로 나누었으나, 山馬場과 牛場을 따로 두어 열네 소장이 되었으며, 감목관을 두어 牛馬를 관리하게 하였는데, 처음에는 牧場관리의 총책임자는 제주목사이고 제주판관, 정의현감, 대정현감은 감목관직을 겸임하였으나, 효종 9년(1658)에 이르러 목사 이희의 장계에 따라, 그전에 金萬鎰이 말 오백 마리를 나라에 바쳤고, 그 아들 김대길은 말 이백 마리를 바쳤으므로, 그들의 후손으로 하여금 감목관의 자리를 세습하게 하였다. 金萬鎰은 선조 33년(1600)에 말 오백 마리를 나라에 바쳐 五衛都總管이라는 벼슬을 받았다.¹³⁾

牧子의 身分은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流離者가 증가되자,

10) 南都泳, 前掲論文(1969), p.35

11) 南都泳, 前掲論文(1965), pp.32~37.

12) 南都泳, “朝鮮時代 濟州島 牧場: 韓國牧畜業 研究의 一端.” 《한국사연구》 4, 한국사연구회, 1969.6, p.108.

13) 홍순만, “濟州島의 역사1: 신화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의 발견: 제주도》, 푸리길은 나무, 1983, pp.61~62.

太宗 15년 호조판서 朴信은 啓達을 올려 백성들이 싫어하는 牧子란 이름을 없앨 것을 力說해서 그 流離者를 막아 보려고까지 하였다.¹⁴⁾ 이는 당시 牧子の 責任이 얼마나 고역이고 비천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濟州島 牧子들의 身分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1817년 6월 대정현 감으로 부임해왔던 金仁澤의 일기중에 “...현민 강선경, 강대손을 각기 곤장 열다섯 대를 쳐서 牧子로 강편하였다...”라는 기록을 들 수 있다.

이들 牧子란 身分을 가진 사람들은 高麗 이래로 國家의 말을 관리하며 관청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사라졌다.

牧畜을 主業으로 하면서 농사일도 겸했던 牧畜業者 및 테우리들은 경제적 차이를 보였을 뿐이고, 牧子와 같은 비천한 身分을 가진 것이 아니라 平民으로서의 身分을 가졌었다.

2. 牧畜環境

濟州島의 牧畜地帶는 標高 200m~600m 사이의 中山間地帶(200~250m)와 山間地帶(250~600m)가 中心地인데, 이 지대는 화산회, 화산쇄설암이 퇴적하여 토지가 척박하고 음료수가 결핍되어 취락의 입지에 부적당하며 농경지로서도 경제적 가치는 적다. 그러나 광대한 草原地帶를 이루어 牛馬의 放牧에 적당하여 古代로부터 全國 第一의 放牧地帶로 되어 있다.

濟州島에서 牧畜이 성한 까닭의 하나인 자연적인 조건은, 도 전체가 漢拏山의 傾斜面으로 되어 있고, 雨水의 삼투성이 크기 때문에 雨量은 많아도 標高 250~300m 부근은 半乾燥 상태로 대략 幅 4~8km의 廣大한 草生地가 발달되어 있고, 더욱이 해양성 기후이므로 연한 牧草가 잘 자라며 氣候가 溫暖하여 降霜期間(12月 26日~3月 11日)이 짧고 -5℃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적어 陸地보다 放牧期間이 길기 때문이다. 草生地面積은 약 13萬

14) <太宗實錄>, ‘江華場牧子… 而流離者已四十餘戶氣以牧場附近之民輸番看飼如船軍例使無牧子之名則流移之斃息矣…’.

15) 金仁澤, “丁丑六月日 大靜縣衙中 日記,” 吳文福 譯, <제주의 마을 ⑧ 大靜고을>, 반석, 1988, p.163.

16) 김문생, 제주도 일도2동 (男, 1919年生) 1990년 8월 談

町步이고 그중 약 4萬 町步는 放牧地로 利用된다.¹⁷⁾

濟州島에는 또한 예로부터 惡獸가 없어 放牧할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濟州風土錄¹⁸⁾에 “...짐승은 노루, 사슴, 돼지 등이 가장 많고, 오소리가 또한 많으나, 이것 외에는 여우, 토끼, 호랑이, 곰 따위는 모두 없다...”라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牛馬의 飼育에는 年中放牧, 季節放牧, 全舍飼 등 세 方法이 있는데 海岸地帶에서는 年中放牧도 할 수 있다. 牛馬의 放牧은 農繁期에 있어서는 隣近 農家 數戶 내지 10餘戶가 1團이 되어 共同的으로 放牧하였는데, 1團中 한 사람이 각 農家의 牛馬를 관리하고, 農繁期가 지나면 共同體를 해체하고 다시 각 農家로 돌아간다. 그리고 여름에는 牛馬를 山岳지대에서 약간 감시하는 정도로 자유스럽게 放牧하다가 가을철이 되면 下山시키는 移放을 행하기도 하지만¹⁹⁾ 대개는 겨울철까지도 山에 放牧한다.²⁰⁾ 이 때 牛馬에 標를 하여 자기 所有로 밝혀 둔다²¹⁾고 한다.

朝鮮時代에 牧場制度가 쇠퇴할 무렵에 草原 外로 牛馬가 드나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上城과 下城의 중간 경계에 돌담장(石垣)을 쌓았다. 이것을 中場城이라 칭하며, 上部·下部間에 牛馬의 이동을 이것으로써 防止케 하였던 것이다. 즉 下部를 경작할 때에는 上部에 移牧시키고, 上部를 경작할 때에는 下部로 移牧하게 하는 耕牧交替를 실시하였다고 한다.²²⁾

濟州島는 自然的으로 牧畜에 적합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歷史地理學的인 고찰로 미루어 보아도, 先史時代부터 野生群이 漢拏山 밀림지대 또는 초원 지대에 자연 밀생하여 이곳 원시인들이 상당기간 동안 유목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²³⁾ 이런 사실은 諸史料에 皮衣肉食하였다²⁴⁾는 기록과 濟

17) 姜錫牛, 〈新韓國地理〉, 새글사, 1971, pp.266~267.

18) 金淨(1520), 〈濟州風土錄〉

19) 姜錫牛, 〈前掲書〉, p.268.

20) 김두향, 제주도 북제주군 대천동(男, 1926年生), 1990.8.2 談

21) 姜錫牛, 〈前掲書〉, p.268.

22) 上掲書, p.268.

23) 南都泳, 前掲論文, p.91

24) 『後漢書』: ‘衣草衣有上無下 奴養牛豕...’; 〈新唐書〉, ‘擔羅는 ...犬豕皮를 입고...’, 金錫翼(1918), 〈耽羅紀年〉

州島 개벽신화인 三姓神話에 가죽옷을 입고 수렵생활을 하였다²⁵⁾ 는 기록 등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濟州島 牧場은 처음에는 土産의 牛·馬·羊 등을 사육하는 정도였으나 그후 백제·신라·고려 등에 소속되어 교역을 하고 특히 高麗 元宗 14년에는 유목민족인 元이 入寇하여 濟州島 牧場을 관리하기 시작함으로써 발달하게 되었다. 元이 濟州島 牧場을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忠烈王 2년(1276)에 塔刺赤을 耽羅達魯花赤에 任命함과 함께 말 160匹을 보내어 지금의 수산과 성산에 東·西阿幕을 설치하면서 목장 건설을 서두르게 한 데서부터였다. 濟州牧場은 그후 100여년간 元에 예속되면서 약 20회에 걸쳐 약 3만필의 말을 元에 보내는 등으로 하여 明나라까지 養馬의 生産地로 널리 알려졌다.²⁶⁾

朝鮮時代에는 “말의 生産은 나라를 富하게 한다.”, “나라의 富는 말의 數로써 결정된다.”고 하여 말의 증산에 힘써 전국에 53개소(세종때)의 국영 목장을 설치하고, 말의 數에 따라 牧子를 배치하였다. 이 당시 말의 용도는 군사상의 戰馬, 통신용의 역마, 교통, 운반, 교역 등의 말 등 다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食用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밖에도 털가죽, 힘줄은 가죽신, 장신구 등에 사용되었고, 갈기, 꼬리털은 갓 또는 관모²⁷⁾ 의 재료로 쓰이고, 馬糞은 肥料, 藥用, 馬糞紙의 原料와 연료로 쓰이는 등 富産物의 用途도 다양하였다.²⁸⁾

25) 未詳, 《瀛州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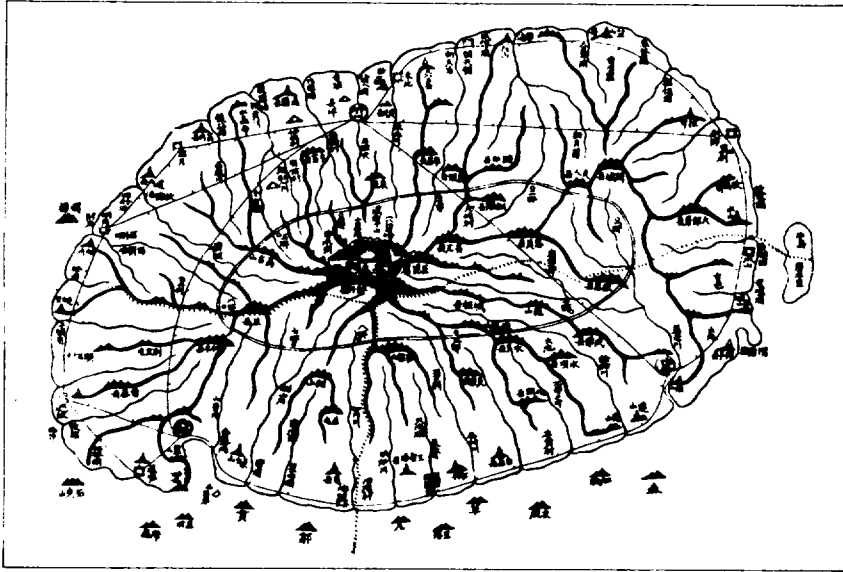
26) 南都泳, 前掲論文, pp.91~92

27) 濟州島에서는 涼太, 갓모자, 宕市, 網市와 같은 갓공예가 특히 발달하였다. 濟州市 道頭에서 朝天面 朝天一帶에서 婦女子들의 必需副業으로 家家戶戶 盛行하였다. 이 지역의 女人들은 6·7歲만 되면 農閑期에 갓공예 作業에 종사하여 그 技術을 익히고, 이로써 家庭經濟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알아왔고, 이 작업으로 일상 용돈은 물론 冠婚喪祭를 치루어 나가며 家屋과 田地를 사들여 재산을 불리던 예도 흔했다. 이 작업은 오늘날에도 濟州女人들의 손에 의하여 전승되고 있다.

김영돈, “濟州의 民間工藝,” 《제주교육》 26, 제주도교육위원회, 1974, pp.75~79.

28) 康珉秀, “濟州 조랑말에 관한 韓·日 研究 動向,” 《제주도연구》 제5집, 제주도연구회, 1988, p.120

朝鮮時代인 世宗 11년(1429)에 제주출신 上護軍 高得宗의 건의에 의해 목마장을 한라산 산록으로 옮기어 축장(築場: 짓성)하게 되었다. 이 때 목마장을 10所場으로 나누었는데(〈圖1〉), 1所場에서 6所場까지는 濟州牧에 속하고, 7·8所場은 大靜縣에, 9·10所場은 旌義縣에 속하였다(〈表1〉). 목장 관리 총책임자는 제주목사이고, 제주판관, 정의현감은 監牧官職을 겸임하였다.²⁹⁾



〈圖 1〉 牧馬場 소재지
(출처: 「제주도」, 뿌리깊은 나무)

元이 멸망한 후에도 濟州島는 高麗에 이어 朝鮮時代까지 馬産地로서 역할을 다하여 왔으며, 馬産에 종사하던 戶數도 濟州島 전체 戶數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濟州島의 生産은 國家의 기간 산업으로 중요시되어 왔다. 近世에 이르러 우리나라 馬匹 사육두수가 최고에 달한 것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日本軍의 군마생산을 목적으로 농촌에서 군마 사육의 장려와 이

29) 金奉玉, "짓성", 《급소리》, 1989년 4월호, 한국마사회, p.48.

〈表 1〉 牧馬場의 위치

소속	목 장	위 치	넓	이	우마필수
濟州牧	1所場	구 좌 읍 위	주위 55리 동서 20리 남북 18리		말 878필
	2所場	조 천 읍 위	" 50리 " 20리 " 10리		말 792필
	3所場	제 주 시 위	" 50리 " 20리 " 10리		말 429필
	4所場	제주시·애월읍	" 45리 " 18리 " 15리		말 573필
	5所場	애 월 읍 위	" 60리 " 25리 " 20리		말 1,094필
	6所場 牛島場	한림읍·한경면 연 평 면 내	" 60리 " 25리 " 20리 " 50리		말 1,314필 소 243두
大靜縣	7所場	안 덕 면 위	" 40리 " 20리 " 10리		말 440필
	8所場	중 문 동 위	" 35리 " 15리 " 10리		말 362필
	毛洞場	대 정 읍 내	" 37리		소 203두
旌義縣	9所場	남 원 읍 위	" 70리 " 35리 " 5리		말 510필
	10所場	표 선 읍 내	" 40리 " 15리 " 5리		말 1,103필
	鹿山場	남 원 읍 위	" 60리 " 10리		
	山 場	표 선 면 위	" 75리 " 30리		말 1,573필
	針 場	조 천 읍 위	" 45리 " 15리		

※정소 16년 삼읍지 참조
(출처: 金奉玉, "갓성", 「굽소리」, p. 48)

에 따른 공출이 시행되었던 1944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종전과 더불어 군용마는 사용 목적이 상실되고, 한편으로는 자동차 보급 대수의 증가에 따라 말의 사육 두수는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6·25동란으로 말의 사육두수는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1984년말에는 우리나라 말 사육 사상 최하위에 머물게 되었다.³⁰⁾

그러나 濟州島는 現在까지 감소추세인데도 在來馬를 飼育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馬匹 飼育頭數는 대부분을 도내에서 生産하고 있는 실정이다.³¹⁾ 다행히 문화공보부는 1985년 9월 17일을 기해 소멸되고 있는 제주마를 천

30) 鄭呂朝, "濟州馬의 生態와 文化財의 價値," 〈濟州道〉, 1985, pp.102~109.

31) 정창조·강태숙, "濟州在來馬의 飼育現況과 經營實態에 關한 調查研究,"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14집, 1982, p.55.

연기념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濟州馬의 보호에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濟州馬는 체형과 모색이 소격마로서 개량마는 물론 일본이나 중국의 在來馬에 비해 체형이 적은 말로 알려져 있다. 특히 濟州馬는 왜소한 체구에 비해 강건하며 농경과 사육에 적당한 말로 현재까지 알려져 왔다. 아울러, 조 사료에도 사육이 가능하며 거의 年中放牧을 행하여 키울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濟州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³²⁾

3. 濟州島 牧者の 生活

본 논문에서 牧者란, 濟州島 中山間 마을 중심으로 牧畜을 主業으로 하면서 농사일을 하는 牧畜業者, 관청에 소속되어 國家의 말을 돌보던 牧子, 목축업자들에 의해 일정기간 그들의 牛馬를 맡아서 관리해주던 테우리를 포함한다. 牧畜業者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넉넉한 생활을 영위하던 사람들이었으나, 관청에 소속되었던 牧子들은 비천한 身分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테우리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이들 테우리들은 소를 돌볼 경우에는 '쇠테우리', 말을 돌볼 경우에는 '말테우리'로 불리웠다.

朝鮮朝 濟州島에 유배된 李健은 濟州島 牧子의 生活를 참혹하다고 했는데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자는 본시 남루한 衣服의 극빈자인 만큼 변상할 말을 사는데 힘이 부족하므로 농토와 농우를 탕매하고, 또 부족하면 술과 농기구 등의 물건들까지도 팔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牧子의 일을 하는 것은 심히 고통스러운 일로서 한번만 그 일을 지냈다고 하면 파산하지 않은 자가 없고, 그 원통함을 부르짖는 愁歎의 형상은 차마 볼 수 없다.…" ³³⁾ 그러나 면담을 통해서 牧子의 生活가 실제로는 그렇게 비참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濟州島 風習중 牧畜과 관련된 것으로 "멤쉐"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통

32) 鄭呂朝, 前掲論文, p.109.

33) 李健 〈濟州風土記〉 "…牧子 以縣芻百結之人 買馬之際 力有不及 盡賣其田與農牛此而不足 如釜鼎農器等物無不賣之 …爲役甚苦 一徑此任 無不破家 其呼免愁歎之狀 有不忍見…"

하여 濟州島 牧者들중 테우리들의 生活의 한 면을 알 수 있다. 멬새"라는 것은 쇠테우리일 경우 牧畜業者들의 소를 관리할 때 소를 관리함과 동시에 소의 노동력을 쓸 수 있으며, 소가 새끼를 낳을 경우 첫 새끼는 자신이 갖고 두번째 새끼는 주인이 갖는 방식으로 새끼의 반을 갖게 된다. 그리고 소가 自然死하였을 경우는 牧畜業者인 주인이 문제삼지 않는다. 이러한 테우리들의 생활 환경은 비교적 넉넉한 생활로 보여지기도 하였다.³⁴⁾

牧者들이 하는 契에는 '켓집'과 '목장집'이 있다. 마소를 가진 농가들이 공동으로 목야지에 돌담을 두르고 이 안에서 함께 마소(牛馬)를 먹이고, 기르는 契를 '켓집'이라 한다. 돌담을 두른 목야지를 '케왓'이라 하며, 계원 아닌 사람의 마소를 맡아서 함께 양육할 때는 賃을 받고 借의 수입으로 한다.³⁵⁾ 또 日帝 때 마소의 공출이 무차별하게 실시되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결성되었던 屯馬조합인 '목장집'이 있었다. 일제가 마을에 강제 배당한 마소의 수량을 이 집에서 접수하여 생산이 없는 늑거나, 허약한 말로 할당량을 채워 공출하는 支혜를 발휘하였다.³⁶⁾

현재도 일부 마을에서는 牧場組合을 구성하여 그 명의로 마을共有地를 維持함으로써 아직도 마을共有地 入會關係에 대한 傳統的 慣行을 存續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北濟州郡 涯月邑 召吉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召吉里의 共同牧場의 경우 組合員들은 順序를 정하여 차례로 牧場에 올라가서 소를 돌보고 있다. 이 순서를 "番"이라고 하는데 "番"은 조합원수를 한 週期로 짜고 있다. 즉 組合員이 10명이라면 10일을 한 週期로 하여 "番"이 짜여지는 것이다. "番"이 돌아온 組合員의 家에서는 두 사람이 아침 8시까지 소를 돌봐야 한다. 缺番하는 경우에는 罰金을 내도록 되어 있고, 또 "番"에게는 注意 義務가 부과되어 있어 管理를 소홀히 하여 소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責任을 지도록 하고 있다.³⁷⁾

34) 高光敏, (제주대학교박물관 연구원), 1990.8. 談

35) 김영돈, <제주성읍마을>, 대원사, 1989, p.29.

36) 吳成贊 등, <제주의 마을⑤ 古城里>, 반석, 1987, p.141.

37) 徐庚林 등, "濟州道 마을 共同體와 法規範," <耽羅文化> 제10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0, pp.351~353.

濟州人들의 생활 영역을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에 맞는 공간 분할과 함께 堂이 있고, 그 직능도 다르다(表2). 한라산 기슭 가까이 있는 산간 부락에 흔히 있는 神堂은 수렵 및 목축신을 모시는데 이런 堂을 '山神堂'이라 부르는 곳이 많고, 그 神名도 '山神大王', '山神百官'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³⁸⁾ '산신멩감'이라고도 한다.³⁹⁾

〈表 2〉 공간 분할과 직능에 따른 神堂

공 간 분 할	직능에 따른 神堂
바다 일터인 바다밭	해신당
마을과 그 중심으로 한 그 주위 밭	본향당
野田인 '난전밭'	수렵 및 목축신을 모신 당

(출처: 「耽羅文化」10, p. 368.)

濟州島에서는 민간 신앙으로 酬祭가 치뤄지는데 城邑里(옛 旌義)의 경우는 祭神 가운데 牧童神이 끼어드는 게 특색이며 마소가 잘 번식하고 자라기를 축원하면서 합부로 도적당하거나 병으로 죽는 일이 없기를 중심으로 빈다. 이 酬祭는 음력 정월 첫 丁日이나 亥日 子時에 치르며 이 무렵 마을에 장사가 있게 되면 그 다음 丁日을 택하여 제를 지낸다. 무속신앙과 관련된 堂으로 성웅리에는 마소를 관장한다는 '쇄당'이 있다. 이 '쇄당'은 마소의 질병을 돌보며 마소를 잃어버렸을 때 정성을 드리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⁴⁰⁾

牧畜에 관한 祭는 백중날(7月 15日)에 치르며, 이날의 모든 행사를 백중제라고 한다. 농축산을 관장한다는 '산신멩감'에 대한 제를 지내고, 테우리고사를 하는데, 백중코시, 백중사리라고도 불리우며, 테우리들이 마소를 놔두는 지점(테우리 동산)에 가서 제를 지내는 것이다. 추수를 마친 10월의 첫

38) 上掲論文, pp.367~368.

39) 玄容駿, 《濟州島巫俗研究》, 集文堂, 1986, p.240.

40) 김영돈, 前掲書, p.102, p.109.

子日에 제를 지내고, 방목한 마소를 구분하기 위해 각 가문별로 각기 다른 표시의烙印을 찍게 되는데, 이를 '귀표고사'라 한다.⁴¹⁾

목축과 관련된 놀이중에서 백중날하는 백중굿,⁴²⁾ 牛馬를 많이 기르는 집이 매년 正初에 山에 가서 牛馬의 번식을 기원하는 祭儀인 산신굿⁴³⁾ 이 있다.

테우리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마소를 관리하는 일 이외에 농사일도 하였는데, 조밭을 밟는 일과 바령팓을 만드는 일 등이었다. 단오를 넘기고 보리를 거두어 들인 그 자리에 바로 밭을 갈아 엷고 줍씨를 뿌리게 되는데 이 때 씨앗이 땅에 잘 심어지라고 말뚝을 밭에 몰아 넣어 씨뿌린 밭을 밟게 하는데 이를 '조밭 밟림'(복토법)이라 한다. 말뚝을 잘 부리는 노련한 테우리일수록 좁은 밭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밟도록 말뚝을 몰 수 있다. 테우리는 말뚝을 부리는 한 방법으로 구성지게 소리를 하는데, 이를 '밭 밟리는 소리'라 한다. 말을 몰아가며 노래하는 과정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띤다.⁴⁴⁾ 보리 경작을 잘되게 하려고 밤에 마소 떼를 밭 안에 몰아넣어 그 분노를 받아 밭의 거름이 되게 하였는데, 이를 '바령헌다'(糞田之道)라고 하고, 이런 밭은 '바령팓'이라 한다.⁴⁵⁾

테우리들의 언어 속에는 말에 관한 蒙古의 유풍이 많이 남아 있다.⁴⁶⁾ 특히 馬匹名에서 蒙古語的인 색채가 짙고,⁴⁷⁾ '말 마는 소리'는 牧牛馬의 풍속이라 한다.⁴⁸⁾ 이는 濟州島가 약 백여 년간 蒙古의 지배로 牧馬場이었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1) 上揭書, p.69.

42) 玄容駿, 前揭書, p.240.

43) 企泰坤, 《韓國巫俗研究》, 集文堂, 1982, 경희대민속학연구소, p.125.

44) 吳成贊 등, 《제주의 마을⑧ 大靜고을》, pp.114~115.

45) 上揭書, p.114.

46) 石宙明, 《濟州島方言集》, 서울新聞社出版部, 1947.12.30, p.174.

47) 朴相主, "濟州島 地方에 나타난 Altai語象要素考: 特히 地名과 馬匹名에 대하여," 《제주도연구》 제3집, 제주도연구회, 1986, p.219.

48) 石宙明, 前揭書, p.174.

Ⅲ. 牧者服의 種類

1. 頭衣

머리에 쓰는 頭衣類는 재료와 용도에 따라 分類되는데, 가죽을 재료로 한 가죽감티, 쇠털로 만든 털벌립, 정당으로 만든 정당벌립, 대나무로 만든 대패랭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頭衣類는 주로 축산을 主業으로 하는 中山間 마을을 중심으로 男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각 종류별로 그 용도와 형태 및 재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죽감티

가죽감티는 牧者들의 방한용 모자의 일종으로 감태라고도 하며, 한라산에서 겨울철 노루사냥 때도 많이 쓰여졌으며,⁴⁹⁾ 1930年代까지만 해도 실생활에서 많이 쓰였다.

감티의 형태는 <圖2>, <圖4>, <圖6>과 같고, <圖3>, <圖5>, <圖7>은 실측도이다. 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잉우라의 白樺帽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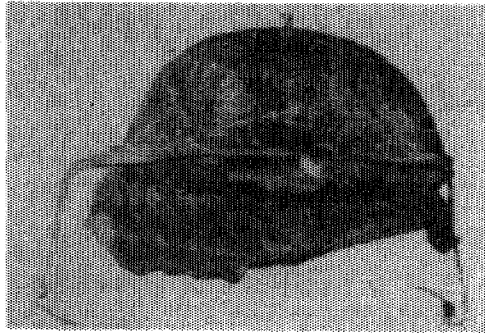
감티를 만드는 재료로는 다양한 종류의 가죽이 사용되며, 작은 크기의 가죽으로도 만들 수 있으므로 만들기가 쉽다. 털이 부착된 상태의 가죽을 사용하는데, 오소리(지달이) 가죽⁵⁰⁾으로 된 것을 최상으로 치고, 주로 개가죽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노루가죽으로도 만들어졌으나, 털이 나쁘고 꺾어지므로 많이 이용되지는 않았다.⁵¹⁾ 상인들을 통해 본토에서 들여온 산달피 가죽으로도 만들었으나, 가죽이 얇고 따뜻하지 않아 별로 애용되지 않았다.⁵²⁾

49) 秦聖麒, 《濟州民俗의 밋1》, 悅話堂, 1979, pp.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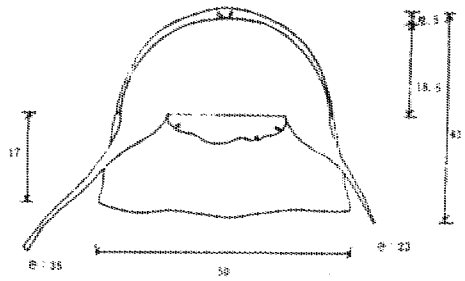
50) 제주에서는 '오로'라고 한다.

51) 김문생, (男, 1919年生)

52) 김두배,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男, 1903年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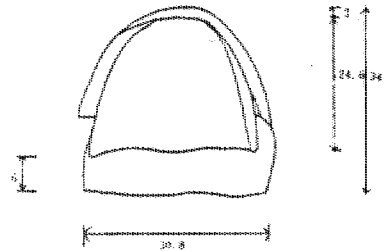
〈圖 2〉 가죽갓티 I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圖 3〉 가죽갓티 I의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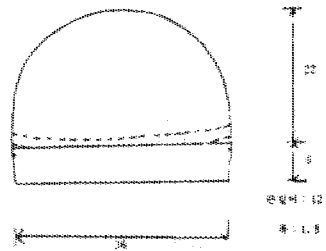
〈圖 4〉 가죽갓티 II



〈圖 5〉 가죽갓티 II의 실측도



〈圖 6〉 가죽갓티 III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圖 7〉 가죽갓티 III의 실측도

가죽을 다루는 방법을 보면, 개가죽으로 할 경우에는 개의 가죽을 벗겨서 털이 있는 부분은 아래로 가게 한 후, 사각형의 형태를 만들면서 최대한의 크기가 되도록 늘리며 네 귀퉁이를 못이나 뾰족한 대나무로 고정한다. 이때 가죽에 붙어 있던 피나 살점은 물이나 재를 넣고 비비면서 제거한 뒤 그늘에서 말린다. 이렇게 말린 개가죽은 뻣뻣하기 때문에 바느질을 할 수 없으므로 부드럽게 하기 위해 멍석에 놓고 이를 정도 밟거나, 손으로 비벼서 부드럽게 한 후 바느질한다.⁵³⁾

감티의 제작법을 살펴보면, 개가죽으로 만들 경우 1마리분인 1장이 소요되며, 반으로 접어 자른 후 둥근 모양을 만들어 귀 옆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속감찰질로 바느질하며 주먹이 양귀 옆으로 들어갈 정도로 크게 만들거나 (이를 '술람감티'라 한다), 머리에 꼭 맞게 만들기도 한다(이를 '죽은 감티'라 한다). 죽 가죽의 크기에 따라 형태가 정해졌다. 이마와 목 뒤는 약간 접혀지게 만들며 옆에 끈을 만들어 턱 밑에서 묶거나 머리 뒤쪽에서 묶기도 하며, 말린 들복숭아씨의 구멍을 뚫어 끈을 끼운 다음 끈을 고정하기도 하였다. 앞보다 뒤를 길게 하여 뒷 목덜미를 방한하도록 함과 동시에 말을 타거나 걸을 때 뒷 목덜미로 드리워진 부분이 움직이도록 하여 자랑으로 여겼다. 그리고 모자의 형태 유지를 위하여 귀 옆에서 정수리까지의 술기 부분에 윤유리 나무(윤노리 나무)를 가늘게 쥐어서 끼운 후 움직이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실로 고정하였다.⁵⁴⁾ <圖2>는 술람감티에 해당되며 <圖4>는 죽은감티로 끈은 보이지 않는다. <圖2>, <圖4>는 1930年代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털이 거의 빠진 상태이다. <圖6>에서는 이마, 목 뒤로 젖혀진 부분이 보이지 않으며, 1980년대에 복원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털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였다.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어느 계절에나 쓰는데, 봄·가을에 쓰면 더우므로 시원하도록 센 고사리 2~3가리를 꺾어서 머리 위에 얹은 후 감티를 썼다.⁵⁵⁾

53) 김두향, (男, 1926年生)

54) 김문생, (男, 1919年生)

55) 김두백, (男, 1903年生)

이러한 형태의 帽子는 韓國 本土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高麗 때, 蒙古에 1세기 간의 지배 동안 牧胡, 즉 濟州島에 와있던 元의 牧子들이 썼던 蒙古帽의 영향이라고 많은 학자⁵⁶⁾들이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蒙古人들은 毛皮로 만든 옷을 입고, 毛皮로 된 帽子를 쓰며, 겨울은 물론 여름에도 毛皮로 된 옷을 입는다.⁵⁷⁾ 결국 元이 牧馬場을 설치하면서 유입된 蒙古人들의 유품이 現在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정당벌립

정당이란 '덩덩이 덩굴'의 제주 방언으로⁵⁸⁾ 쉼닝쿨의 일종이며 정당벌립이란 쉼닝쿨로 만든 갱이 있는 帽子란 뜻이다.

〈圖8〉과 같은 형태의 이 帽子는 약 700년 전부터 주로 목동이 마소를 칠 때 쓰던 것으로, 목동이 방목중인 마소가 도망칠 때 그 뒤를 쫓기에 편하다. 나뭇가지나 가시덤불이 모자에 닿자마자 미끄러져 빗나가 머리카락이 긁히거나 상하지 않고,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먼지 비바람으로부터 얼굴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질기다. 이 정당벌립은 오늘날 蒙古人의 生活에서 볼 수 있는 털병거지와 같은 모양, 비슷한 수법으로 만들어졌으며, 단지 그 재료가 서로 다를 뿐이다. 즉 정당벌립은 온화한 한라산의 기후에서 자라는 정당이라는 일종의 쉼닝쿨을 그 재료로 삼고⁵⁹⁾ 있음에 반해 털병거지는 털을 소재로 하고 있다. 또한 페랭이처럼 차양이 넓어(지름이 약 50cm정도이다) 여름철 광선을 피하기에 좋으며, 남자들이 주로 쓰나 여자들도 쓴다.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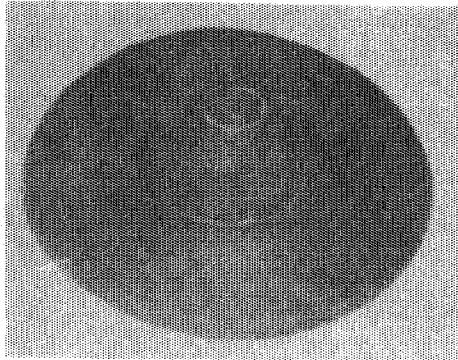
56) 石宙明, 《濟州島 隨筆》, 寶善齋, 1968, p.90; 金東旭, 《增補韓國服飾史研究》, 亞世亞文化社, 1973, p.118; 宋錫範, 《濟州島古代文化의謎》, (東京: 成甲書房, 1984), p.153; 김인호, "동통시 文化," 《月刊觀光 濟州》, 월간관광제주사, 1989.5, p.134.

57) 米山庸夫, 《蒙古草原: 蒙古風俗圖譜》, 影印本, 民俗苑, 1985, p.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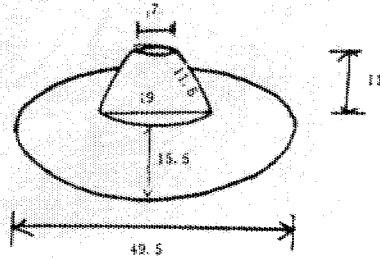
58) 石宙明, 《前掲書》, p.22.

59) 秦聖麒, 《南國의 民俗(下)》, 教學社, 1975, pp.230~232.

60) 高富子, "濟州島 地方," 《韓國民俗綜合報告書: 衣生活編》,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5, p.381.



〈圖 8〉 정당벌립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圖 9〉 정당벌립의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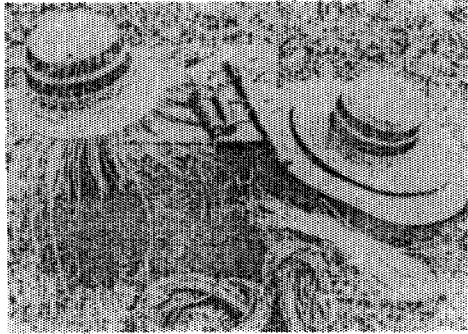
정당벌립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野山에 自生하는 정당을 뜯어다가(줄기는 1年生으로 따르면 다음해 다시 나와서 자란다.) 비 맞지 않게 하면서 약 1개월 정도 말린다. 8월초 줄(가축의 먹이풀)하기 조금 전, 추석 전후에 주로 말린다. 비 맞으면 색고 빛깔이 나빠 품질이 떨어지므로 말릴 때 정성을 다해야 한다. 적당히 말랐으면 품질을 선별하고 조금씩 동그랗게 사려서 둔다. 제작할 때는 물대야를 옆에 두고 축이면서 만든다. 정당벌립은 애월읍 귀덕리가 주산지였으며, 그 중에서도 귀덕1리에서 주로 잤다. 해방 후 수요가 줄어들자, 현대식 모자형을 〈圖10〉 고안해서 현재까지 제작·이용하고 있다.⁶¹⁾

정당벌립은 만들기가 힘들어 자랑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 굵게 갖고 다니면 수명이 약 3년 정도이나, 비를 맞게 되면, 두·석달 사용도 힘들다. 비를 맞을 경우에는 수명에 치명적이나 만일 비를 맞았을 경우에는 산디결(중산간 마을 밖에서 나는 비결)을 태워 그 연기를 쐬어 색을 방치하며, 보관시는 모자틀에 끼워서 가끔 햇볕을 쬐이도록 하면서 보관한다.⁶²⁾

보관상, 사용상의 불편 때문에,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濟州人들에게는

61) 高富子, 前掲論文, pp.381~382.

62) 김두백, (男, 1903年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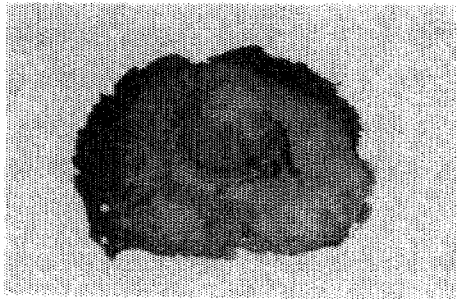


〈圖 10〉 현대식 형태의 정당벌립
(출처: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衣生活篇」, p.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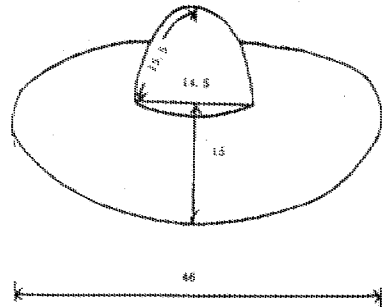
귀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다른 帽子에 비해 많이 쓰여지지 않았다.

3) 털벌립

털벌립이란 털병거지를 가리키는 제주도 방언으로 쇠털(件毛)로 만들어진 農帽의 한 가지이다. 형태는 〈圖11〉과 같으며, 〈圖12〉는 실측도이고 정당벌립과 형태상 차이가 없다.



〈圖 11〉 털벌립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圖 12〉 털벌립의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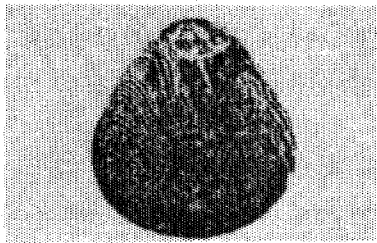
털벌립은 단단하고, 비바람에 견디내는 힘이 있어 농부들은 장마 때 갈 옷을 입고, 우장을 쓴 차림에 이 털벌립을 쓰면 放牧한 마소를 돌보는 일로 온종일 돌에서 지내도 끔찍없었다⁶³⁾ 고 한다. 제주도 민요중 〈큰 애기 풀이〉에

63) 素聖顯, 前掲書, pp.86~88.

정의 산 앞 큰 애기들은
털벌립 만들기가 일쑤로다

하여 旌義(지금의 성읍)에서 털벌립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오는 날 주로 쓰며 가난한 사람들은 갓 대신 제사 때에도 썼으며 여름철에 비를 많이 맞아도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 실용적이어서 마소를 돌보러 갈 때 비싸도 많이 썼다. 짐승의 털을 이용하였으므로 제주 풍습에 따라 남자들만 썼다.⁶⁴⁾ 쇠떼우리들이 주로 썼으며, 해방 전까지도 산간목자들 간에 기술자가 많았다. 李在秀亂(1901년, 天主教亂) 때에도 방탄용으로 사용하였다. 원래 軍帽였으나 1906년 釐羅卒이 해산된 뒤에 민간에서 사용하였다⁶⁵⁾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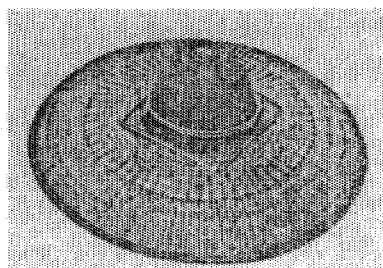
(圖 13) 모자골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봄철 쇠(소)가 털갈이할 때 소털을 모아(12근 정도) 활로 태워서 콩물로 접착시켜 (圖13)과 같은 모자골에 맞춰 잡아눌리며 모양을 잡는다⁶⁶⁾ 또 3·4월에 모아뒀던 소털을 본에 놓은 후 방망이 등으로 계속 밀면 털이 오그라들면서 엉켜 단단해지는데, 이 성질을 이용하여 만들기도 했다. 검은 털·노란털 모두 사용되었으나, 검은털이 가장 좋은 재료였으며, 만들 때 잘못 만들면 형태유지가 잘 안되고 끝이 휘어지기도 했다.⁶⁷⁾

64) 김두백, (男, 1903年生).
65) 高富子, 前掲書: 衣生活編, p.381.
66) 上掲書, p.381.
67) 김두백, (男, 1903年生)

4) 대패랭이

대패랭이는 <圖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벌립, 털벌립과 형태상 차이가 거의 없다.



<圖 14> 대패랭이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남·녀 공용으로 주로 사용하였으며, 평상시 들녘에 다닐 때 쓰는데 정당벌립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실용적이며 구하기 쉬워서 많이 썼다.⁶⁸⁾ 가볍고 통풍이 잘되어 쓰면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다. 朝鮮朝 憲宗 때 (1840~1849) 秋史 金正禧가 濟州島에서 유배생활할 때도 시종 이 대패랭이를 썼다고 전한다.⁶⁹⁾

만드는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재료로 적당한 대나무(신의대 또는 죽대라고 한다.)는 3年生으로 竹筍이 피기 전인 음력 2~3월에 채취하여야 하고, 상록수(참나무, 후박나무, 신나무 등) 樹下에서 자란 것일수록 마디가 길고 유순하여 上品으로 꼽는다.⁷⁰⁾

주로 城山面 水山里와 蘭山里에서 제작되며 城山面, 舊左面 등지에서 애용됐다.⁷¹⁾

같은 대나무를 재료로 했다 하더라도, 대의 어느 부분으로 만든 것이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대나무의 바깥 부분, 곧 皮竹으로 만든 패랭

68) 김두백, (男, 1903年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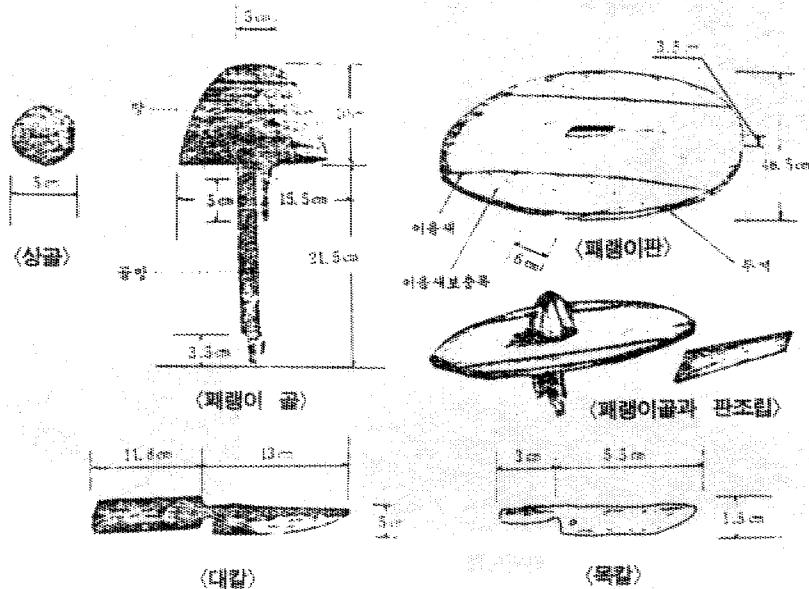
69) 素聖觀, 前掲書, p.35.

70) 李榮培, “濟州의 民間工藝(II): 대패랭이,” <조사연구보고서> 제2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86, p.13.

71) 김영돈, “濟州의 民間工藝,” <제주교육> 26, 제주도교육위원회, 1974, p.81.

이는 단단하고 탄력이 있고 외형도 아름다워上品으로 치며, 속껍질로 만든 것은 여리고 색기 쉽고 탄력이 없어 下品으로 친다.⁷²⁾

대패랭이를 만들 때 필요한 도구로는 <圖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랭이골, 패랭이판, 목탕, 대칼, 목칼이 필요하고, 쇠가죽으로 되어 무릎 위에 얹어 놓고 덧조각을 몇 차례나 말끔히 훑을 때 사용되는 무릎장(무릎장)이 필요하다.



<圖 15> 대패랭이 제작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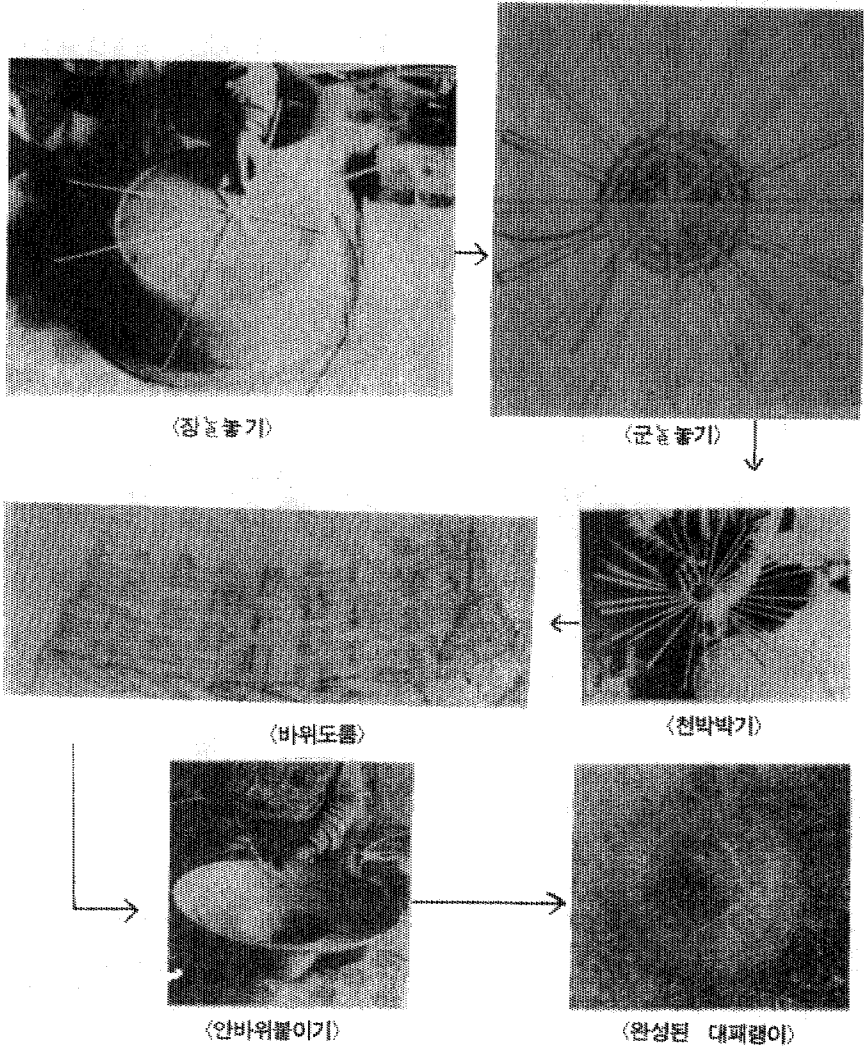
(출처: 李榮培, "濟州의 民間工藝(II): 대패랭이")

대패랭이를 만드는 과정은 대오리(실대) 제작과정과 결는 과정으로 크게 二分되는데⁷³⁾ 대오리 제작과정은 대나무를 실처럼 만드는 과정이며, 결는 과정은 모자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대오리 제작과정은 재료구입, 대별

72) 秦聖麒, 前掲書, pp.35~36.

73) 金榮本, 前掲論文, pp.79~80.

트기, 놀대와 실대 트기, 뗏가지 다루기 및 실대 조깅, 염색, 건조과정을 말한다. 이때 염색의 재료는 함배나무(황벽나무)의 껍질을 사용하는데 色素가 좋은 시기인 음력 10월경에 채취한다. 함배나무는 해안지대에서도 一部自生하지만 성읍2리 일대 속칭 '달랑쉬' 숲에서 채취한다. 채취된 재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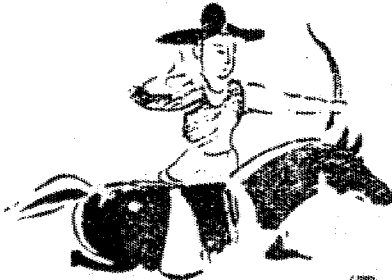


(圖 16) 대패랭이 제작과정

(출처: 李榮培, "濟州의 民間工藝(II): 대패랭이")

손으로 껍질을 뜯어내고 内皮의 중간 부분에서 노란색이 나는 재료만 사용하며, 노란색이 나는 皮를 '새길피'라고 한다. 이 새길피는 가마솥에서 1시간 정도 끓이면 노란물이 우러난다. 이때 실대·늘대를 놓고 30분 정도 끓여 염색하게 된다. 결는 과정은 장늘(대) 놓기, 군늘 넣기, 골 끼우기, 양태 군늘 넣기, 바위도름, 안바위 붙이기, 마지막 손질 과정이 포함된다(圖16).

이상 濟州島에 전해지는 牧者服 중 모자류를 살펴보았는데, 이 중 정당벌립, 털벌립, 대패랭이는 모자골을 <圖13>과 같은 것을 사용함으로써 해서 형태상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고구려 감신총 기마인물도 <圖17>에서도 보인다.



〈圖 17〉 고구려 감신총 기마 인물도
(출처: 李如星, 「朝鮮服飾考」, p.144)

森津塚遺跡騎馬人物圖

털벌립이 재료면에서 北方的 民俗 요소라고 본다면, 정당벌립은 漢拿山에서 자라나는 정당이라는 칠톱나무를 그 재료로 하여 만든 濟州島 고유의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대패랭이는 朝鮮時代 韓國 本土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대나무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모자를 착용하게 된 듯하다. 재료에 있어서는 韓國 本土와 큰 차이가 없으나, 형태상으로는 濟州島의 자연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韓國 本土의 帽子類에 비해 차양이 넓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정당벌립과 대패랭이는 南方的 民俗 요소로 보아야 할 것 같다.

74) 李榮培, 前掲論文, pp.13~18.

2. 表衣

겉에 입는 表衣類에는 가죽으로 만들어 겨울철에 입는 가죽두루마기와 주로 비오는 날 입는 우장이 있으며 각각의 형태, 재료, 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죽두루마기

두루마기란 골고루 터진 곳이 없이 막혔다는 뜻이며, 우리 고유포의 형태는 옷길이가 종아리 정도이고, 좁은 소매에 수구, 옷단, 옷깃, 설에 선이 둘러져 있는 두루막힌 것인데,⁷⁵⁾ 몽고어의 "Xurumakci"에서 轉化된 것으로,⁷⁶⁾ 두루마기의 시초는 裘衣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의는 獸毛皮로 만든 두루마기이고 北方에서 禦寒의 庶民服으로 사용되었다.

中國에서는 裘를 周代에서부터 착용하였고, 後代에 내려가서 이를 大禮의 袍로 여겨 天子는 大裘, 君王은 狐白裘, 士大夫는 虎裘, 狼裘, 狼青裘, 羔裘 등을 입었으며, 庶人은 犬羊의 裘를 착용하였다.⁷⁷⁾

모피가 흔했던 북쪽 산간 지방에서는 설매를 타고, 곰·뱀 등을 사냥할 때 입혀졌던 방한복으로서, 또 조선조에는 일반인들의 복식 사치 심리를 자극시키는 사치 품목의 하나로서 입혀지기도 하였으나,⁷⁸⁾ 濟州島에서는 주로 中山間地方에서 마소를 돌볼 때 입혀졌던 牧者服의 한 종류로, 겨울철 漢拏山에서 사냥을 할 때 사냥복으로도,⁷⁹⁾ 입혀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어름철에는 한라한 山峰에 氷雪이 있으므로 어름을 캐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자는 두터운 갓웃(구)를 겹쳐입고, 하루에 한 짐씩 관가에

75) 金美子, "두루마기의(周衣)의 變遷에 關한 研究," 《서울여대농어촌개발연구총서》 제15집, 1980, p.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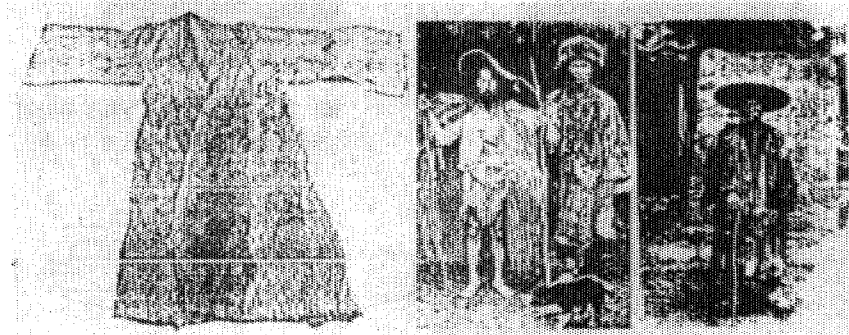
76) 金東旭, 《韓國의 服飾史: 上古의 服飾》, 고대민속문화연구소, 1970, p.28.

77)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p.29.

78) 趙孝順, "朝鮮後期服飾의 風俗史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1986, pp.66~67.

79) 秦聖麒, 前掲書, p.16.

제공하였다.”⁸⁰⁾ 는 기록으로 보아, 겨울 이외에 여름에도 특수한 目的으로 입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官家의 모임에도 이 가죽두루마기를 입고 가는 일이 있었으며 특히 제주시나 旌義지방(지금의 城邑)에서는 귀하게 여겨 많이 입었다고 한다.⁸¹⁾ 즉 牧者服 이외에 사냥복, 방한복, 예복으로, 그리고 富의 상징으로도 입었다. 後漢書,⁸²⁾ 新唐書,⁸³⁾ 瀛州誌⁸⁴⁾에 가죽옷을 입고 牧畜生活을 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濟州島의 가죽두루마기 언제부터 착용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濟州島民 스스로 환경 적응 과정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본다.



〈圖 18〉 1880年代 가죽두루마기
(출처: 石宙善 「衣」, p.122)

〈圖 19〉 1890年代 가죽두루마기
(출처: 「뿌리깊은 나무」, p.65)

80) 李健, 前掲書

81)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衣生活篇》, 1985, p.345.

82) 《後漢書》, ‘馬韓之西海島 上有州胡國 其人短小兒頭衣草衣有上無下好養牛豕 乘船往來貨市韓中…’ (卷 185, 韓), 金英淑 編, 《韓國服飾史資料選集; 上古·高麗篇》, 東洋服飾研究所, 1985, p.40.

83) 《新唐書》, ‘濠羅는 신라무주 남도상에 있어 풍속이 박무하고 犬豕皮를 입고, 여름에는 草屋에 살며, 겨울에는 窟屋에서 산다.’, 金錫翼, 《耽羅記年》, 1918

84) 未詳, 《瀛州誌》, ‘…皮服肉食 常以遊獵爲事…’.

石宙明,⁸⁵⁾ 金東旭,⁸⁶⁾ 孫敬子,⁸⁷⁾ 등은 濟州島에 남아있는 개가죽 두루마기는 蒙古의 遺風이라고 하고 있다. 개가죽 두루마기는 1880년대 <圖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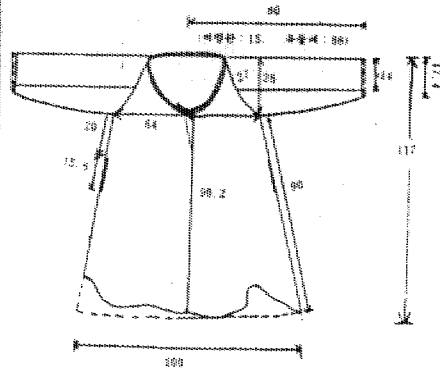
<圖 20> 1937年代 가죽두루마기
(출처: 「圖說. 朝鮮地理風俗: 下」)



<圖 21> 1980年代 가죽두루마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圖 22> 개가죽 두루마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圖 23> 개가죽 두루마기의 실측도

85) 石宙明, 前掲書, p.90.
86) 金東旭, 前掲書, p.118.
87) 孫敬子, 前掲論文, p.32.

1890년대 <圖19>, 1937년대 <圖20>의 사진을 통하여 그 형태를 알 수 있고, 濟州島에 現存하는 유물은 제주민속박물관,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가죽두루마기를 만들던 古老는 이제 濟州에 남아있지 않다. '89년에 개가죽두루마기를 만들던 마지막 古老가⁸⁸⁾ 작고함으로써 이제 그 맥이 끊어졌으나, 다행히도 그가 마지막으로 만든 개가죽두루마기 <圖21>가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전시·보관되고 있다.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圖22> 제작하였는데 <圖23>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형태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다. 약 1930年~50年代의 것으로 추정된다.

<圖18, 19, 20,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대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가죽두루마기의 형태는 변함이 없이 유지·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드는 방법 및 재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죽두루마기는 가죽조각들을 가죽으로 만든 끈이나 삼끈, 말총으로 엮어서 대뜸단추와 끈으로 여미어 매도록 되어 있다.⁸⁹⁾ 가죽 재료는 牧畜에서 얻어지는 쇠가죽, 개가죽, 그리고 사냥에서 얻어지는 노루가죽, 토끼털,⁹¹⁾ 지달이가죽을 사용하였다. 濟州島의 가죽두루마기의 주재료는 개가죽인데, 집집마다 개를 많이 길러서 흔히 구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 가죽이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온성이 크다는 이유로 인해 널리 사용되었다.⁹²⁾

<圖22>의 개가죽두루마기는 개가죽 9장인 9마리분으로 만들어졌으나, 대개는 12장 내지 13장이 필요하며, 큰 개일 경우는 12마리, 넉넉하게 해입을 경우는 13마리분이 소요된다. 양쪽 소매에 3장, 몸통에 6장, 두루마기의 무에 해당하는 옆부분에 4장 정도의 개가죽을 분배하여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정빛이 도는 개가죽 한 장을 따로 준비하여, 뒷 목 바로 밑에

88) 宋奉年, 북제주군 교래리(1989. 11. 亡)

89)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衣生活篇》, pp.344~345.

90) 石宙善, “衣”, 《민속학자료》 제3집, 단국대학교출판부, 1985, p.171.

91)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衣生活篇》, p.345.

92) 김두항, (男, 1926年生)

붙여 이를 자랑으로 여겼다.⁹³⁾

주로 월동 준비에 들어가기 전인 음력 8, 9월이 되면 개의 새 털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털 상태를 “털이 잘 피었다.”고 한다. 크기에 상관없이 잘 핀 개를 잡아 재료로 사용해야 부드럽고 윤기가 나며, 털이 잘 빠지지 않는다. 개가죽은 집에서 기르던 개에서 대개 얻으며,⁹⁴⁾ 좋은 가죽을 구입하기 위하여 돌아다니기도 했다.⁹⁵⁾ 과거에는 濟州島에서 자란 濟州犬에서 가죽을 얻었다고 하나, 지금은 멸종되었다.⁹⁶⁾

개가죽을 다루는 방법은 가죽감티를 만들 때와 같으며, 부드러워진 개가죽은 말가죽실(갑실이라고 한다.), 미녕실(무명실)로 대장간에서 만드는 맥바늘(가죽바늘이라고도 하며, 길이는 약 13cm, 0.3cm나비 정도의 크기이다.)을 이용하여 속감칠질로 솔기를 잡고, 소맷부리, 무의 주머니 부분의 상침 바느질을 흠질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가죽은 언제나 남자가 다루며, 바느질도 남자가 하게 된다.⁹⁷⁾ 그러므로 옷의 형태나 바느질이 여자가 한 것처럼 꼼꼼하지 못하다. 이렇게 濟州島의 것은 털을 제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의 어떤 손질도 하지 않고 만들었지만, 함경도 지방의 가죽두루마기 제작시의 가죽 다루는 방법을 보면, 우선 가죽에 붙은 털을 빈틈없이 밀어서 뽀뽀하게 하고 잘 씻은 후, 삶은 개의 골(腦)이나, 돼지의 골을 물에 풀고, 그 물에 가죽을 푹 담가 하룻밤을 지낸 뒤 가죽을 짜서 물을 빼고 잘 말려서 가죽을 부드럽게 해서 사용했다.⁹⁸⁾

가죽두루마기의 보관방법은, 여름철에는 그늘에 말려서 걸어 두거나, 발에서 나는 산디짚 사이에 넣어서 부엌에 보관한다. 뽀뽀해진 개가죽두루마기를 입을 경우는 주먹크기의 ‘돛지름’(돼지기름)을 넣어서 불에 녹이면서 가죽에 발라 비벼 부드럽게 한 후 입으며, 이러한 과정을 “개가죽에 풀한다.”(개가죽에 풀한다.)라고 한다. 보통 개가죽 두루마기의 수명은 10년 정도

93) 김두백, (男, 1903年生)

94) 김두향, (男, 1926年生)

95) 김문생, (男, 1919年生)

96) 石宙明, 前掲書, p.36.

97) 김두향, (男, 1926年生)

98)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함경남·북도편〉, 1981, p.195.

이며, 안에 입는 옷으로는 주로 감옷(갈옷)이나 누비옷 같이 좋지 않은 옷을 입는데, 그 이유는 개가죽두루마기 안에 돼지기름이 발라져 있어서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 그 하나이고, 겨울철에 아무리 얇은 옷을 입더라도 개가죽두루마기 하나만 걸치면 매우 따뜻하므로 그 이상의 옷이 필요없었기 때문이 또 하나의 이유였다.⁹⁹⁾

개가죽두루마기 외에 가죽옷이라 하여 길이가 엉덩이를 겨우 가릴 정도이고 허리에 '미'(음력 8月쯤, 역세의 꽃이 갓 피어나기 직전의 꽃봉우리를 말하며, '미배쟁이'라고도 한다.)로 만든 띠를 둘러 입던 옷도 있었는데, 활동이 편하며, 많은 양의 개가죽이 없어도 만들 수 있었다¹⁰⁰⁾고 한다. 그러나 실물을 볼 수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자가 면담했던古老들은 모두가 직접 이 개가죽두루마기를 입어본 경험을 가진 이는 없었고, 다만 입은 모습, 만드는 방법 등을 보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 가죽두루마기는 牧者들 모두가 입지 못하였는데, 그만큼 귀한 옷이기 때문이었다. 한 마을에서 10집 내지 20집에 한 벌 정도 있었으며, 가죽이 많이 쓰이므로 牧畜을 많이 소유하면서 테우리를 거느리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사람들만이 해 입을 수 있어서 대단히 자랑으로 여겼다.

2) 도롱이(雨衣, 蓑衣)

좁새기, 도롱이, 꿩이, 우장 등으로 부르나, 도롱이로 통용한다. 길이가 짧은 것은 '도투기'라 하여 비오는 날, 풀베 때에 사용되었고, 대부분 무릎 밑까지 올만큼 길게 만든 도롱이를 사용하였다. 여름에는 雨衣가 되지만, 겨울에는 防寒用도 되며, 산이나 들에서 밤을 세울 때는 이불이 되기도 하는 등 그 용도가 다양하였다.¹⁰¹⁾ 南槎錄에 “섬사람 가운데 가난하여 옷이 없는 자는 흔히 멍석과 도롱이를 써서 추위를 막고 있다...”¹⁰²⁾ 는 기

99) 김두백, (男, 1903年生)

100) 김문생, (男, 1919年生)

101)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衣生活篇》, pp.386~387.

102) 金尚憲, 《南槎錄》

록으로 보아 비올 때 입는 雨衣의 용도 이외에 가난한 이들에게는 防寒服의 일종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장(도롱이)은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빗물이 스며들지 않으며, 이것을 착용한 후 털벌립이나 샷갓을 쓰고 목장이나 들·밭이 아닌 마을 안에서라면 '남신'(나막신) 하나만 더 신으면 어떤 비에도 걱정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우장을 두 사람이 함께 쓸 수도 있다.¹⁰³⁾

우장은 다른 衣服에 비해 구하기 쉬우므로 집집마다 있으며 마소를 돌보러 갈 때 많이 입었으며, 자신이 만들기도 하나 대개 자신의 몸에 맞게 주문하여 주문복으로 입었다.¹⁰⁴⁾

韓國 本土의 것은 <圖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 허리밑 前面을 두르는 것과 어깨에 걸쳐 잔등까지 내려오는 上·下 분리된 형태로 벗짚을 이용하여 만들고, 雨天時 농사일에 男·女 공히 착용한 반면, 濟州島의 것은 <圖25> 上·下 분리되지 않고 두루마기 같이 목부분에서 무릎까지 덮일 정도로 길며, 男子들이 牛馬를 돌볼 때 주로 사용하였으므로 中山間 마을의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다.¹⁰⁵⁾

우장이 中國 明朝에서도 牧者服의 일종으로 입었던 것을 <圖26>에서 알 수 있다.

우장을 만들 때의 주된 재료는 띠인데 이를 제주에서는 '새'라고 한다. 이 띠를 엮어서 가느다랗게 새끼줄을 만들어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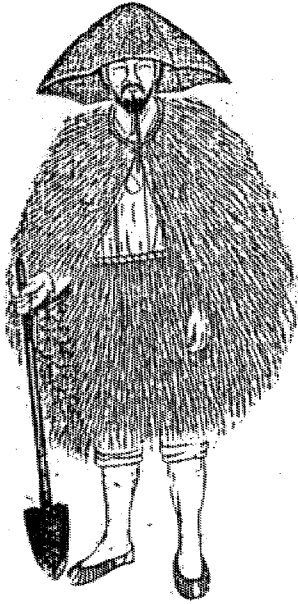
우장을 만드는 순서와 방법은 <圖27>, <圖28>, <圖29>, <圖30>, <圖31>과 같다. 그림은 각각 목거리에 코걸기, 너울 넣기, 목거리에 상판줄걸기, 몸체연음, 바위도름, 마무리 손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개의 우장이 완성되는데 숙련된 기능공인 경우 3~4일을 제작하여야 한다.¹⁰⁶⁾

103) 秦聖麒, 前掲書, pp.67~68.

104) 김두항, (男, 1926年生)

105) 李榮培, "濟州島의 民間工藝Ⅱ: 우장", <조사연구보고서> 제3집, 1987, pp.19~22.

106) 李榮培, 前掲論文, pp.2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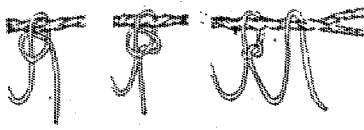
〈圖 24〉韓國 本土의 우장
(출처: 「韓國服飾圖鑑: 上」, p.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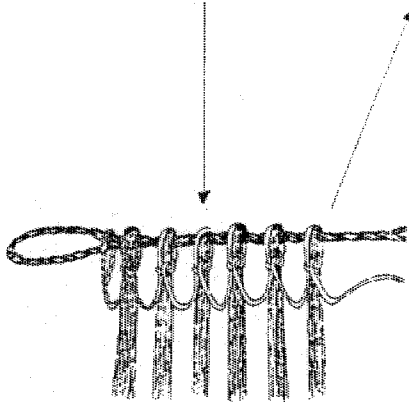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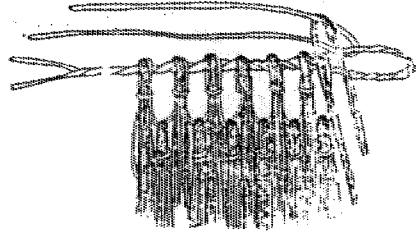
〈圖 25〉濟州島의 우장
(출처: 「뿌리깊은 나무」, p.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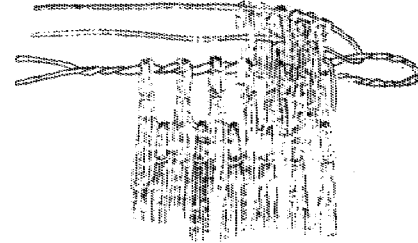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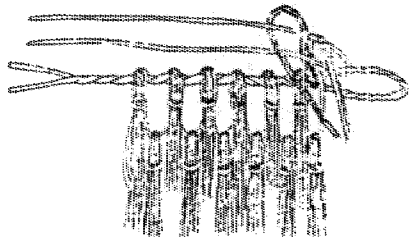
〈圖 26〉中國 明代的 養衣
(출처: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p.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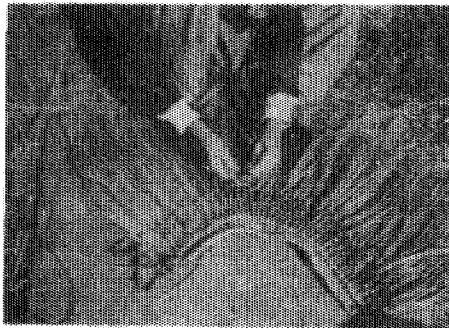
〈圖 27〉 목거리에 코걸기.



〈圖 28〉 너울 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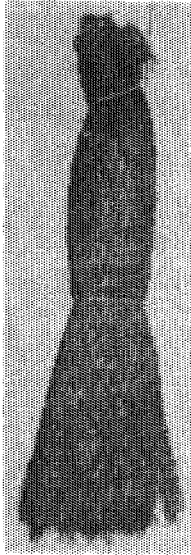
〈圖 29〉 목거리에 상편줄 걸기.



〈圖 30〉 우장의 울체위음



〈圖 31〉 우장의 마무리 손질



(圖 32) 우장의 보관법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보관 방법은 (圖32)와 같이 뒤집어 말아서 우장에 붙은 끈으로 묶은 후 머리의 기둥이나 헛간 기둥 등에 매달아 둔다.¹⁰⁷⁾

3. 上 衣

牧者服의 上衣에는 濟州島의 대표적인 노동복이라 할 수 있는 갈적삼을 들 수 있고, 그외에 누비저고리, 솜저고리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다. 각 종류별 형태, 용도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갈적삼

감물 들인옷을 갈옷이라 하며 위에 입을 것을 갈적삼이라 한다. 한 겹으로 만들어지며, '미녕'(무명)이나 베에 물을 들여서 입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이용하며, 감옷이라고도 한다. 평상시에, 牛馬를 돌볼 때, 밭일을 할 때 등 어떤 경우에도 입는 濟州島의 대표적인 노동복이자 평상복으로 남녀노소 모두 입었다.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現在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갈적삼 1점을 (圖33) 계측하였다(圖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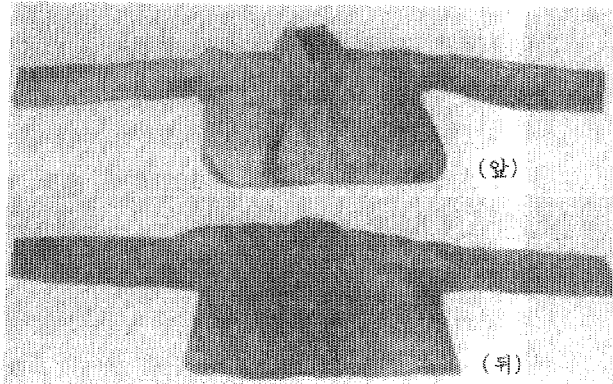
감물 들이는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의 붉은 맛이 가장 짙을 때인 음력 7월쯤에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나는 '뫼감'(채래감)으로 물을 들이는데, 6월 감은 색이 연하고, 붉은 색이 돌며 검붉은 색이 돌므로 적당한 시기를 잘 선정하여야 한다. 감이 워낙 구하기 힘들 경우는 들장미 뿌리를 이용하여 물을 들이기도 하는데, 갈옷과 비슷한 색이 나온다.¹⁰⁸⁾

감물 들이는 방법은, 뫼감을 따서 남도구리에 넣고 덩그렁 막개 (圖25)로 으개서汁(감물)을 낸다. 으개진 감즙이 풀고루 옷에 묻도록 주물러 비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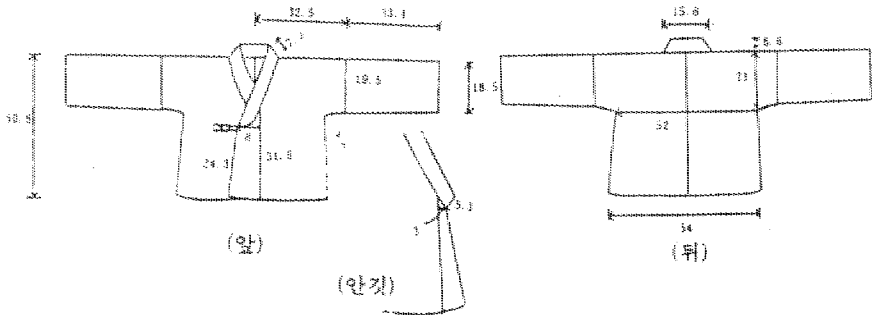
107) 김두향, (男, 1926年生)

108) 김문생, (男, 1919年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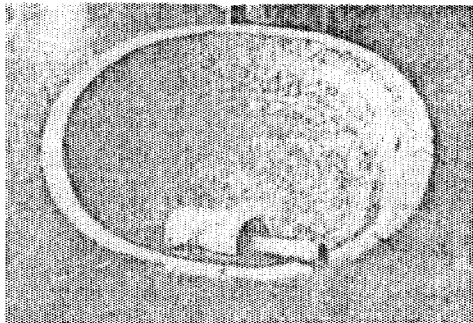
汁이 부족하면 물을 부어 약간씩 뭉개 해서 한다. 완전히 물고루 汁이 배
었으면 짜겨기는 털어내고 옷의 모양을 바르게 한 뒤 잘 통하여 햇볕이
잘 드는 편편한 곳에 널다. 여름의 직사광선에서 약 10여일간 말리면 된
다. 마르는 대로 물을 적시면서, 앞뒤 고르게 벌을 쏘인다. 앞과 뒤의 벌소



〈圖 33〉 갈적삼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圖 34〉 갈적삼의 실측도



〈圖 35〉 남도구리와 덩그람 막개
(출처: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衣生活篇』 p.470)

이런 量이 다르거나 물을 제 때에 못 축이거나 기후가 나빠서 우천시에 말리지 못했을 때는 빗갈이 나쁘거나와 고르지 않고 풀기가 죽고 촉감이 좋지 않다.¹⁰⁹⁾

濟州島 사람들은 그들의 갈옷에다 감물 들이는 것에 대해 '염색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감물은 호사하기 위하여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질기고 때가 덜 타고 편리한 노동복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다.¹¹⁰⁾

보통 가정에서는 한 가족의 옷을 모두 감물 들이는 데, 1년에 한 벌 정도 감물을 들이며, 가난한 사람들은 위에 입는 적삼이나 아래에 입는 중이 하나만 하였으며, 여유있는 사람은 두 벌 정도 하여 한 벌은 조문시 외출복으로 입었다. 잘 입으면 약 2년 정도 입을 수 있고 1년 사계절 내내 입었으며 겨울에는 갈옷 두 벌을 걸쳐 입었는데, 겨울에는 가장 험 갈옷을 입고 속에는 깨끗하고 좋은 갈옷을 입었다. 또 갈옷을 겹에 입고 안에는 누비옷이나 솜옷을 입기도 하였으며, 또는 험 갈옷을 입고 이 위에 개가죽 두루마기, 가죽발레를 입어 방한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갈옷 한 벌을 입고, 우장을 입어 방한을 하기도 하였다.¹¹¹⁾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갈옷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¹¹²⁾

- ① 작업 도중 비를 맞아도 몸에 달라붙지 않아 일하기가 좋다.
- ② 감에는 일종의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어 물은 물론 땀 물은 것을 그냥 두어도 썩지 않는다.
- ③ 땀이 묻어도 땀냄새가 안난다.
- ④ 세탁할 때 비누가 필요 없고, 물이 빨리 빠진다.
- ⑤ 먼지나 보릿가시랭이 따위의 거친 오물이 붙어도 털면 곧 떨어진다.
- ⑥ 옷의 색깔이 흙 색깔과 같으므로 계속 입어도 더러워진 줄 모른다.
- ⑦ 감물을 염색하면 땃뻘해지므로 풀을 먹일 필요가 없고 한결 더 질겨

109)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衣生活篇》，p.339.

110) 前掲書：衣生活篇，p.389.

111) 김두향, (男, 1926年生)

112) 樂聖麒, 前掲書 pp.18~19.

진다.

⑧ 이슬맺힌 밤에서 김멜 때 물방울이 붙어도 곧 떨어져 옷이 쉬 젖지 않는다.

⑨ 목초를 벨 때도 가시나 목초에 걸리지 않는다.

⑩ 물에서 일하는 어부들의 경우에도 좋다.

2) 누비저고리

겨울철 방한복의 일종으로, 中山間 마을에서는 아주 부자인 사람만이 입을 수 있었다.¹¹³⁾ 헌 옷조각을 모아서 누벼 만든 것으로 韓國 本土의 것과 재료면에서 차이를 알 수 있다. 따로 누비옷을 마련했다가 입지는 않았다.¹¹⁴⁾ 방한복으로 개가죽두루마기를 입으면 어떠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었으므로, 누비저고리가 많이 이용되지 않았고 때문에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牧着服의 한 종류로 입혀졌던 누비저고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누비저고리 유물이 한 점 있는데 <圖36>과 같고, 형태를 보면 마고자화 비슷하며, 동정·웃고름이 없이 깃부분을 툠툠히 하기 위하여 광목으로 덧대었고, 누빈 간격은 0.5cm이며 흙질로 처리하였다. <圖36>을 제작한 것이 <圖37>이다.

3) 솜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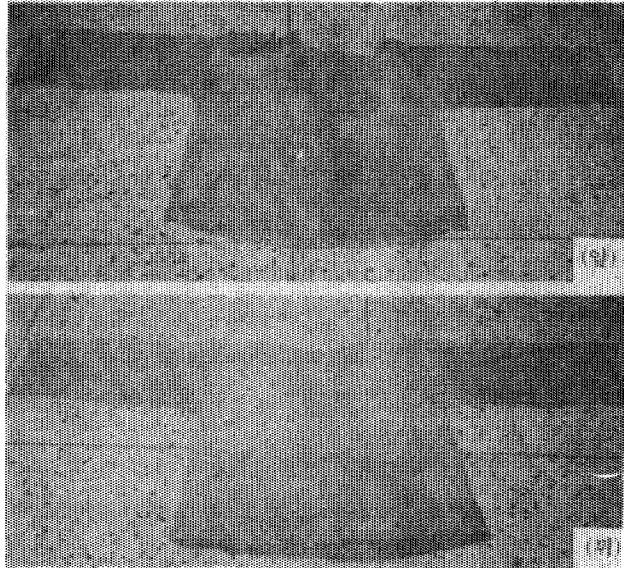
갈적삼에 입거나, 솜저고리 하나만 입어서 겨울철에 방한하였다. 大靜地方(濟州道 南濟州郡)에서 나는 솜을 무명저고리 안에 얇게 넣어서 입었고, 이것 역시 經濟的으로 여유있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었고, 워낙 귀한 옷이었다.¹¹⁵⁾

겨울철에는 개가죽두루마기 하나만 입으면, 어떤 추위에도 견딜 수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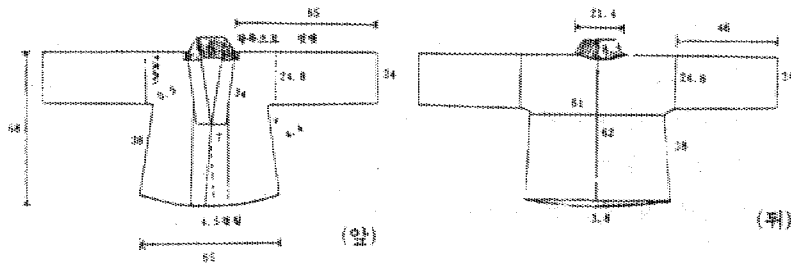
113) 김두항. (男, 1926年生)

114) 김문생. (男, 1919年生)

115) 김두백. (男, 1903年生)



(圖 36) 누비저고리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圖 37) 누비저고리의 실측도

기 때문에, 솜저고리와 같은 방한복이 거의 이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복재료 또한 귀하였기 때문에 솜저고리를 입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개가죽두루마기를 입었을 것이다.

4. 下衣

牧者들이 입는 下衣類에는 개가죽으로 만든 가죽발레가 있으며, 감물 들

인 갈증이, 누비저고리와 한 벌로 입는 누비바지가 있다. 각각의 형태 및 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죽발레

가죽발레는 허벅다리까지 끼게 만든 일종의 가죽 각반 형태로 1930년대 까지만 하여도 사냥꾼의 下衣차림으로 가죽발레를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¹¹⁶⁾ 면담 古老들에 의하면 1948년 4·3사건 전까지만 하여도 中山間 마을을 중심으로 男子들이 겨울철 방한복으로 가죽발레를 입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하나, 4·3사건 때 全廢되어 이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개가죽두루마기와 마찬가지로 귀한 옷이므로, 아무나 입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자랑으로 여겼다.

입는 방법은 가죽발레를 각각 한쪽 다리에 끼운 후 윗부분에 연결된 끈을 속에 입은 갈증이(흙으로 만들어 감물을 들인 종이)의 허리띠에 연결, 옆구리쪽에서 묶고, 그 끈이 저고리 밖으로 보이도록 하여 자랑으로 여겼다. 돌널에 나갈 때는 발목을 묶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묶지 않고 풀어서 지낸다. 겨울철이나 이른봄·늦가을 추위가 엄습하기 시작하면 마소를 돌보러 나갈 경우, 장거리 여행시 입으며 집에서 방한복으로 많이 입었다.¹¹⁷⁾

겨울철 눈을 때 입으면 따뜻하고 속에 입은 옷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만드는 방법을 보면, 가죽은 주로 개가죽이 이용되며 2장 내지 3장이 소요되고 검은 개의 털, 흰 개의 털을 구별하지 않고 만들었다.¹¹⁸⁾

現存하는 유물 한 점이 <圖38>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가죽발레의 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즉 유물을 계측한 결과 양쪽 크기가 달라서 실제로 짝이었는지 의문이 간다<圖39>. 다리에 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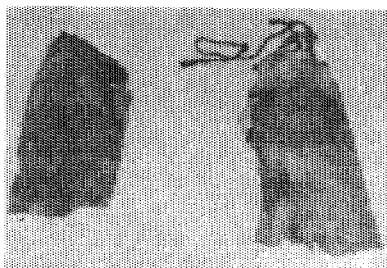
116) 樂聖顯, 前掲書, p.11.

117) 김두백, (男, 1903年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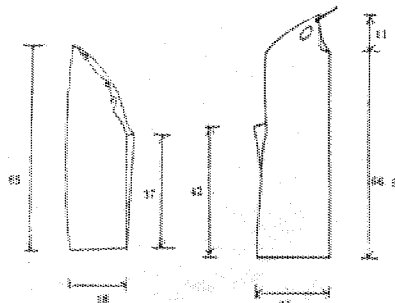
118) 김두백, (男, 1903年生)

부분은 개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술기 바느질은 무명을 끈 실로 속감칠질 하였고 허리와 연결하는 끈은 무명을 겹쳐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군데 군데 터진 부분을 기운 흔적이 있으며 털은 거의 다 빠져있는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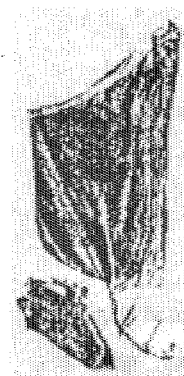
가죽발레의 형태는 기원전 1C의 노임우라 출토물에서 나온 接腰型바지(圖40) 및 日本의 正倉院에 있는 보물인 布接腰型 바지와 유사하다(圖41). 재료면에서 가죽을 이용하였다는 점은 韓國 本土의 바지 재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죽발레는 「耽羅巡歷圖」에서 牧者들이 牧養時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圖42), 蒙古의 牧馬場 건설과 함께 입기 시작하였다고 생각은 되지만,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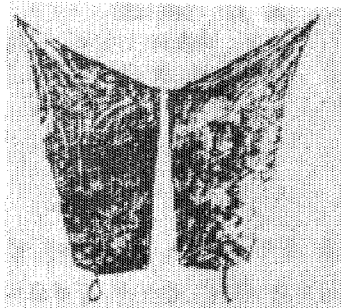
(圖 38) 가죽발레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圖 39) 가죽발레의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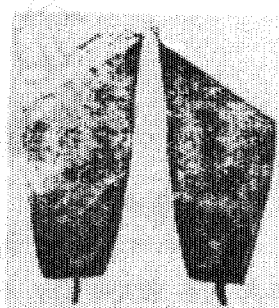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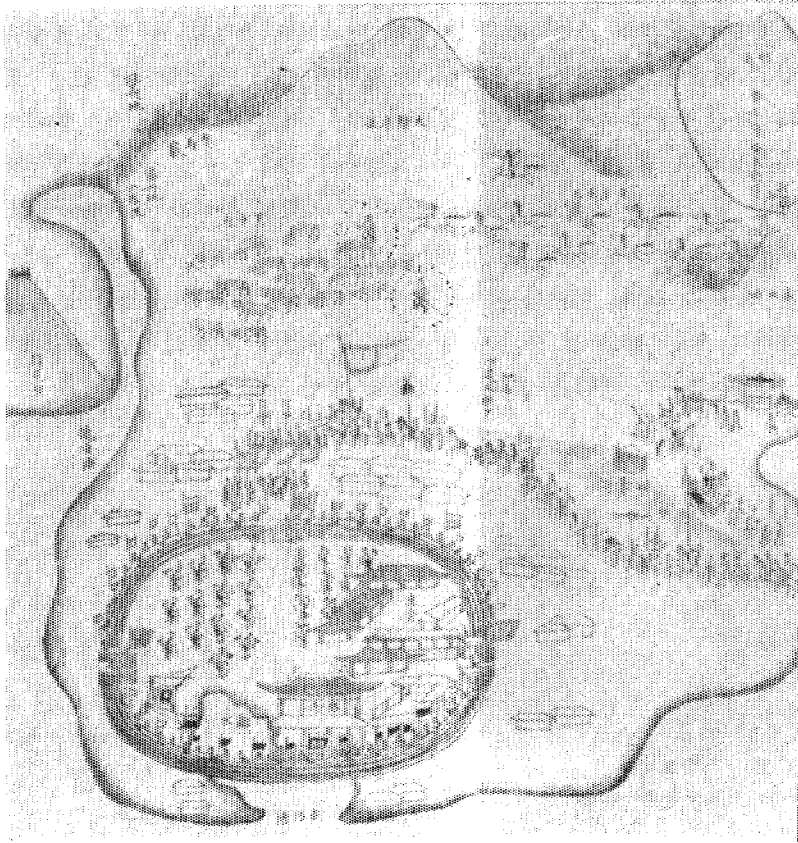
(圖 40) 노임우라의 接腰型 바지
(출처: 高福男, 「韓國衣服의 類型과 樣式」, p.50)



(圖 41) 正倉院의 接腰型 바지

(출처: 「奈良朝服飾の研究: 圖錄編」, p.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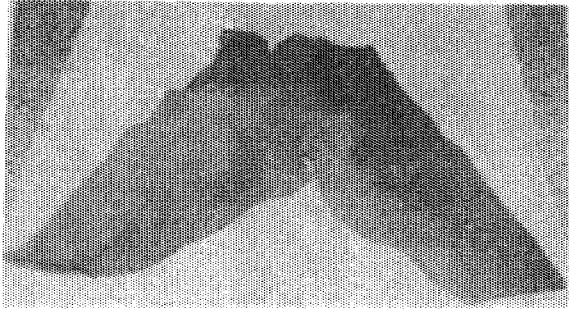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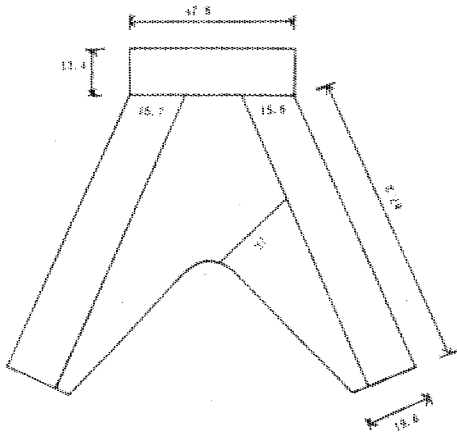
〈圖 42〉 別防操點
 (출처: 李衡祥(1702年), 「耽羅巡歷圖」, 影印本)
 * 정선안이 牧子임

2) 갈중이

갈적삼과 마찬가지로 김물을 들인 옷으로, 男子들이 입는 바지형태의 홀
 으로 만든 袴衣(중이)를 갈중이라고 하며, 특성은 갈적삼과 같다. 韓國 本土
 의 바지와 형태가 같고 갈적삼과 함께 사계절 내내 입는다(圖43). 〈圖43〉
 을 계축한 것은 〈圖44〉이다.



〈圖 43〉 길종이
(제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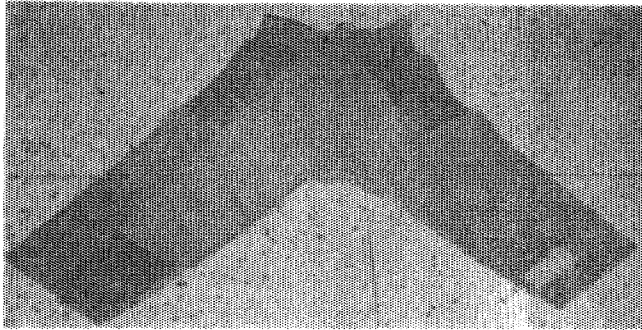


〈圖 44〉 길종이의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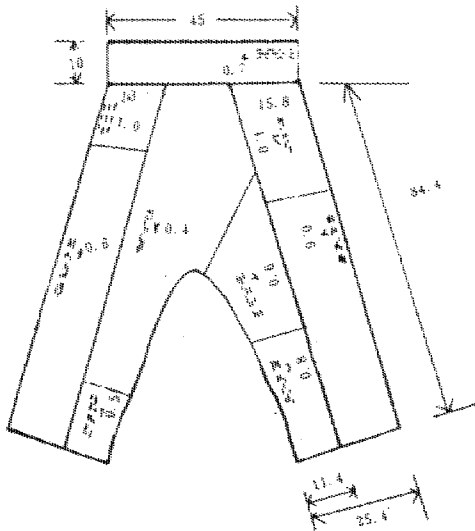
3) 누비바지

겨울철 방한복으로 누비저고리와 함께 한 벌로 입었으나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고, 가죽발레라는 방한복이 있음으로 해서 누비바지의 착용은 거의 없었고 유물 또한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 유물이 한 점 있으나〈圖45〉 누비저고리와 마찬가지로 牧者服의 한 종류로 입혀졌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圖46〉은 〈圖45〉를 계속한 것이다.



(圖 45) 누비바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圖 46) 누비바지의 실측도

옷감 여러 조각을 모아 누빈 것으로, 누빈 간격(0.4~1.0cm)은 고르지 않으나, 우리나라 고유의 바지 형태와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5. 足衣

足衣類에는 가죽으로 만든 버선 형태의 가죽보신(가죽버선), 가죽으로 만든 짚신 형태의 가죽신, 그리고 초신(짚신), 나막신, 눈을 때 덧신은 태알(설피)이 있다. 각 종류별 용도 및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죽보선(가죽버선)

遊牧民이 신던 버선행 靴로서, '가죽버선'이라 하여, 세 조각으로 만들었으니, 三合靴¹¹⁹⁾ 라고 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 고찰한 결과에 의하면, 형태상 세 조각으로 만든 가죽버선은 볼 수 없었고 주로 두 조각, 네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만들 때의 재료는 노루가죽이 가장 좋고, 망아지가죽, 개가죽, 소가죽이 이용되었다. 표면의 털을 모두 제거하고, 소금에 절여서 부드럽게 한 후 송곳으로 구멍을 뚫거나¹²⁰⁾ '가죽바늘'(가죽바늘: 가죽재료를 바느질할 때 사용하는 바늘)을 이용하여 가죽실이나 말총 또는 실을 꼬아서 바느질 했다.

가죽두루마기나 가죽발레, 가죽감티와는 달리 털을 제거한 가죽이 이용되며 무겁고 딱딱해서 옷으로 만들기에 부적합한 소가죽을 많이 사용했다. 개가죽으로 만들 경우에는 개의 발목(다리) 부분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털이 짧아 제거할 필요가 없고, 개가죽으로 만들면 소가죽보다 부피도 작고, 부드러우며 이러한 버선을 '개발보선'〈圖47〉이라 한다.¹²¹⁾ 회목에서 목까지의 부분을 가죽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圖49〉, 〈圖51〉, 가죽을 구하기 힘들면 무명을 이어서 만들기도 하였다〈圖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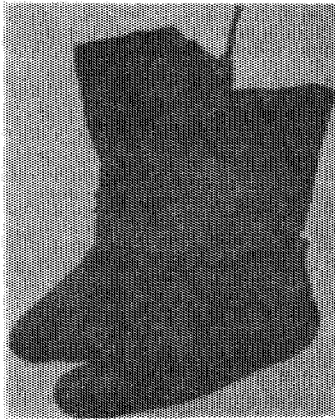
가죽버선을 만들 경우에는 본(버선본)도 사용하나 구하기 힘들어 집에 있는 빗자루(발모양으로 생겼는데, 지금은 없다.)를 본 대용으로 사용, 본에 맞게 가죽을 잘라서 바느질 하는데, 가죽버선을 만들어 뒤집을 정도로 부드럽지 않으므로, 시점이 걸으로 드러나며 男子들이 만들어 신으므로 크기는 넉넉했다.¹²²⁾ 남자들이 바느질 했으며 흙질과 감칠질로 바느질 하였고 때문에 바느질 상태는 영성하다.

119) 金東旭, 前掲書, p.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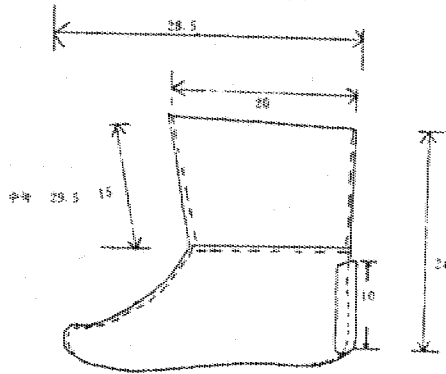
120)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衣生活篇〉, p.345~387.

121) 김두백, (男, 1903年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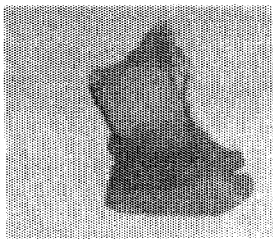
122) 김두항, (男, 1926年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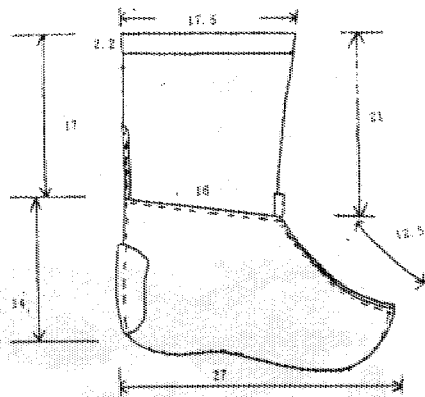
〈圖 51〉 가죽보신 Ⅲ (소가죽 : 四合靴)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圖 52〉 가죽보신 Ⅲ의 실측도



〈圖 53〉 가죽보신 Ⅳ (무명사용)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圖 53〉 가죽보신 Ⅳ의 실측도

이 아니라, 농사일을 할 때, 집에서 신는다.¹²⁴⁾

가죽보신 위에는 갑설신, 국시신과 같은 가죽신이나 짚신을 신고 사냥할 때나 눈쌓인 곳에 갈 때는 설피(태왁이라고도 한다)를 덧신는다.

2) 가죽신(갑설신, 국시신)

韓國 本土의 짚신과 형태는 같지만 재료가 가죽이기 때문에 가죽신이라

124) 김두항, (男, 1928年生)

고 하였다. 형태가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귀목남'(글모남이라고도 하며, 노티나무를 말한다.)을 사용하며, 재료는 주로 소가죽을 썼는데, 털을 제거한 소가죽을 0.6~0.8cm 정도의 굵기로 가죽날을 만들어 사용하고, 신 바닥은 '대뚫가죽'(한라산에 사는 큰 돼지)으로 했다. 실은 소가죽을 가늘게 다루어 만든 갑실로 바느질 하였으므로 갑실신¹²⁵⁾이라 하였으며, 꿩신¹²⁶⁾이라고도 했다(圖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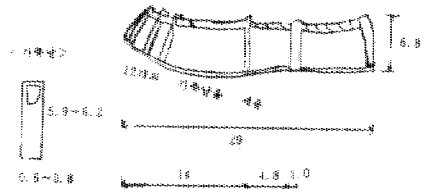
또한 차바퀴를 잘라서 바닥에 대어 만든 국시신¹²⁷⁾이 있는데 타이어신¹²⁸⁾이라고도 하며 (圖57) (圖59), 주로 1950年代 이후에 신었다.

이 가죽신은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농사일 또는 마소를 돌보러 나갈 때, 사냥을 할 때 신었으며, 이것도 역시 재료가 가죽이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신을 수 있었으며 신이 워낙 귀해서, 가시밭을 걸을 때는 신고 마른 땅에서는 들고 다니기도 하였다¹²⁹⁾ 고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濟州島에서는 가죽신이 지방 특산물로 되어 있다. 이것은 濟州 地方의 산에 사슴이 많아서 그 가죽을 이용할 수 있는데다, 각 가정에서는 牧畜을 하여 세밀하고 질긴 가죽을 만들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하고 있다.¹³⁰⁾



(圖 55) 가죽신 I (갑실신)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圖 56) 가죽신 I의 실측도

125) 김두백, (男, 1903年生)

126) 김문생, (男, 1919年生)

127)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女生活誌》，p.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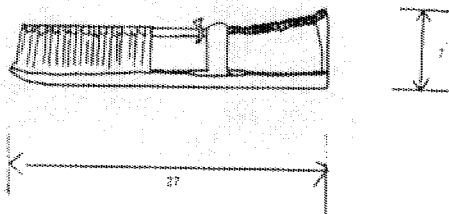
128) 김문생, (男, 1919年生)

129) 김두항, (男, 1926年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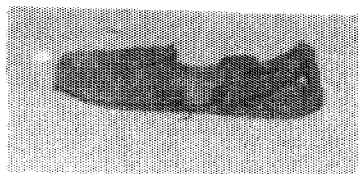
130) 민족문화추진회, 《新增東國輿地勝覽》 V, 1984, p.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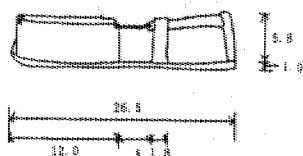
〈圖 57〉 가죽신Ⅱ (국시신)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圖 58〉 가죽신Ⅱ의 실측도



〈圖 59〉 가죽신Ⅲ (국시신)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圖 60〉 가죽신Ⅲ의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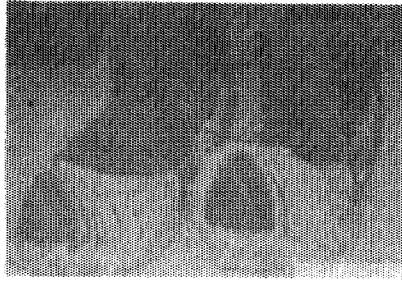
3) 초신(靛靛)

濟州島 中山間 마을에서는 밭에서 벼농사를 하는데 이때 얻어지는 짚을 산디짚이라 하며 이 산디짚으로 만든 신을 초신(靛靛)이라 한다(圖61).

만드는 방법은, 신날로 '미'가 사용되는데, 이 미를 뽑아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 두들겨 말린 다음 쓰며, 신 바닥에 사용되는 산디짚은 물을 뿌리면서 두들겨 삶은 다음 부드러워지면 신을 삼았다.¹³¹⁾

초신(靛靛)은 대부분 남자들이 각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신었으며, 무명버선 위에 신거나, 가죽버선을 신은 다음 신기도 하였고 맨발에 신기도 하였다. 1년 내내 신었으며, 남녀노소 모두 가장 많이 신었던 종류였다.

131) 김문생, (男, 1919年生)



〈圖 61〉 초신(醜神)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4) 나막신(木屐)

濟州島에서의 木屐은 '남신', '나막신'으로 불리웠는데, 다음과 같은 민요와 전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함박축이 춤을 추고
 남신축이 요제를 치고

남신 신영 돌다리 발문
 활강 달강 소리가 난다.
 요 임 절영 요 인심 삶은
 남신 더욱 소리가 난다."¹³²⁾

"...오찰방은 산방산으로 돌아났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고 한탄하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이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깨어진 나막신을 꿰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¹³³⁾

'남박신'이라는 명칭은 황해도에서의 木屐 명칭과 일치하는데¹³⁴⁾ 이것은 삼별초 항쟁으로 삼별초와 함께 入去한 土女들에 의한 언어습득이 濟州島에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¹³⁵⁾

132) 秦聖麒, 《南國의 民謠》,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58, p.27.

133) 秦聖麒, 《南國의 傳說》, 一志社, 1959, p.142.

134) 崔鶴根, 《韓國方言辭典》, 玄文社, 1978, p.692.

135) 金泰能, 《濟州島史論考》, 제주신문사, 1982, p.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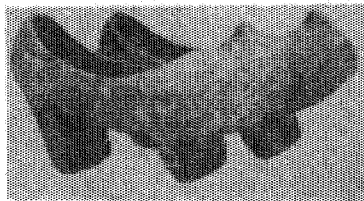
濟州島의 木履의 형태는 <圖62>와 같이 韓國 本土의 木履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韓國 本土의 것은 대체로 발굽의 선 모양이 여덟 팔자(八)형으로 벌어져 있는데, 濟州島의 것은 엮어놓은 디글자(=)형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안쪽으로 휘어진 나란한 형으로 되어 있어서 걸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¹³⁶⁾

<圖25>에서 볼 수 있듯이, 우장을 입고 털벌립을 쓰고 긴 막대기를 짊고 나막신을 신은 모습을 특히 중산간 마을에서 많이 볼 수 있었으며,¹³⁷⁾ 牛馬를 돌볼 때의 복장이었다.

나막신은 주문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주로 기능공적인 목수가 만들며, 신을 신을 때는 산디젼을 바닥에 깔거나 버선을 신은 다음 신었다. 장거리 여행시는 신지 않았으며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男子들이 비오는 날 주로 신었고,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는 집에서도 신었다. 남녀노소 거의 신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신다가 깨지면 버렸다.¹³⁸⁾

만드는 법을 보면, 재료로는 杉나무가 많이 사용되며, 제작과정은 초갈이 질과 마감질로 나뉘지며, 만들 때의 도구는 <圖63> 툴, 끌, 당치, 우비칼(호비칼), 자귀, 신본, 각쇠가 쓰여진다.

濟州島에서는 杉나무의 자연무늬를 그냥 이용하여 만들기도 하였으나,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돼지기름을 칠하기도 하였다.¹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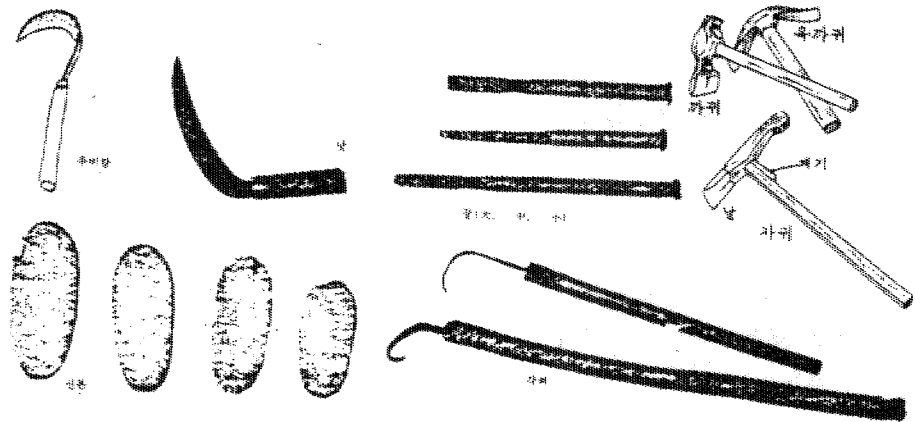
(圖 62) 나막신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136) 秦聖獻, 前掲書, p.33.

137)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衣生活篇》, p.387.

138) 김두백, (男, 1903年生)

139) 朴晚仁, “우리나라 나막신(木履)에 관한 고찰; 朝鮮王朝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3, pp.3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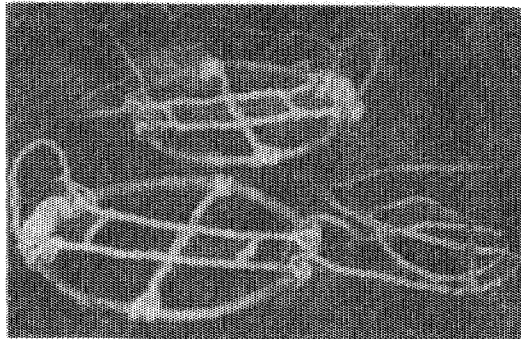
〈圖 63〉 나막신 제작도구

(출처: 朴晚仁, "우리나라 나막신(木履)에 관한 고찰: 朝鮮王朝를 中心으로", pp.3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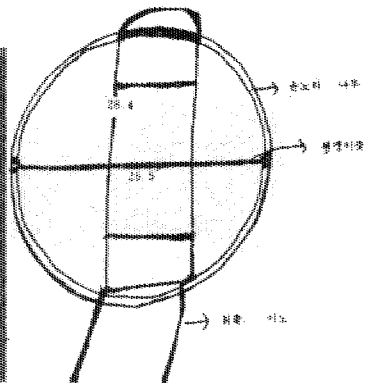
5) 태왁(설피)

눈이 많이 왔을 경우, 방목중인 마소를 돌보러 나가거나, 사냥을 나갈 때 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는 신의 일종이었다.

만드는 주재료는 잘 휘어지는 윤노리나무이며, 이 나무로 틀을 만들었고, 쟁쟁이줄과 침줄, 미로 만든 줄인 미노로 중간을 엮어 매었고, 발목에 묶는 끈을 만들었다.¹⁴⁰⁾ 〈圖64〉.



〈圖 64〉 태왁(설피)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圖 65〉 태왁의 실측도

140) 高光敏, (제주대학교박물관 연구원), 1990.8 誌.

6. 其他 所持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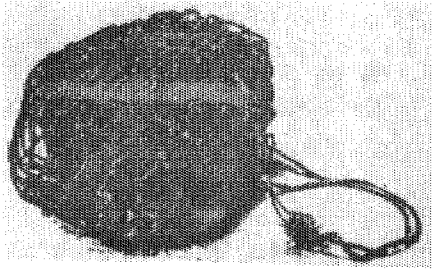
牧者들이 갖고 다니는 所持品類에는 도시락을 넣고 다니는 약도리, 도시락에 해당하는 동고랑, 물을 넣고 다니는 물병, 그리고 해삼, 총배, 낭몽동이 등이 있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약도리

야외용 도시락을 담아 매는 조그마한 망태기 비슷한 도시락 주머니인데, 지역에 따라 약돌이, 약돌기라고 한다.

참억새의 꽃이 채 피어나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 곧 미ષ재쟁이를 뽑아다가 끈 실로,¹⁴¹⁾ 그물처럼 엮어짜서 도시락(동고랑)이 들어갈 만한 크기로 만들었다(圖66).

牛馬를 돌보는 牧者들이 약돌기를 나뭇가지에 매달아 두었다가 점심참에 꺼내어 먹고, 약돌기는 노끈으로 만든 것이므로 신축성이 있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수확이 있을 때에는 이 속에 담아가지고 올 수 있는 다목적 주머니였다. 이때의 수확은 사냥한 꿩이나, 버섯, 유롭(山바나나)같은 산 열매, 고사리, 제미 따위를 채취하였을 때를 말한다.¹⁴²⁾



〈圖 66〉 약도리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2) 동고랑

약도리 속에 들어가는 도시락을 동고랑(밥당석)이라고 하는데, 도고랑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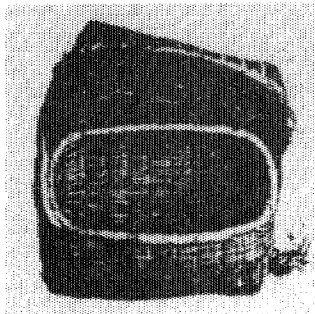
141) 제주대학교박물관, 《濟州의 食生活 用具》, 1989, p.57.

142) 藥聖麒, 前掲書, pp.6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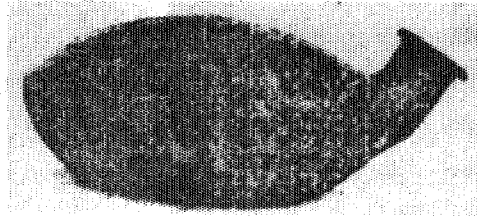
고도 부른다. 대나무를 재료로 하여 도시락 크기 만큼 만든 채통을 말한다 <圖37>.

韓國 本土의 채통이 씨릿개비로 만들어지는데 반하여 濟州島의 채통들의 주재료는 거의 대나무이다. 濟州島는 韓國 本土에 비하여 채통을 만들기에 손쉬운 濟州 조릿대가 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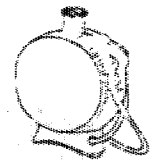
동고탕은 濟州島의 채통중 최소형의 것이다. 사냥이나 牛馬를 돌보기 위하여 산으로 나가거나 들로 나갈 때 야외용 점심밥 채통이라 할 수 있다. 인원(일반적으로 1인용)에 따라 규격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휴대하기 편하게 만들어졌다. 몸통과 덮개가 있고 그 속에 밥과 반찬을 썬다. 이를 미끼쟁이로 만든 그물같은 주머니(약도리)에 넣어 어깨에 메거나 등짐을 지고 다녔다.¹⁴³⁾



<圖 67> 동고탕
(출처: 秦聖麒, 「濟州民俗의 빛」, p.65)



<圖 68> 물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圖 69> 자리병
(출처: 이훈중편, 「국학도감」, p.51)

3) 물병

牛馬를 돌보는 牧者들이 등이나, 옆구리에 물러메고 다니기 편하도록 만든 <圖68>과 같은 납작한 자라 모양의 물병으로 자리병, 납작병이라고도 한다.

韓國 本土의 것<圖69>과는 형태상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즉 주둥이와 몸통이 일직선인데 반해 濟州島의 것은 직각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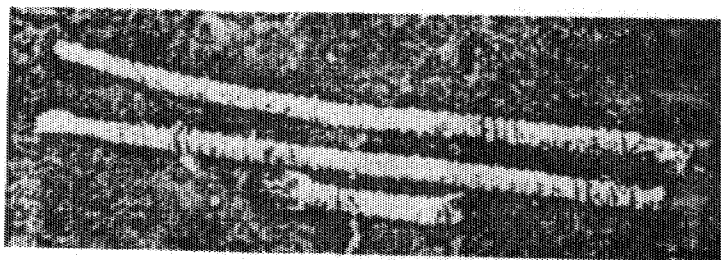
143) 제주대학교박물관, 前掲書, p.57.

4) 화심(火心)

미뻬쟁이를 취죽기로 묶어 불을 붙여 불씨를 이어 주도록 만든 것으로 화심, 화승이라고도 부르는데, 미뻬쟁이로 만든 것이므로 일면 미심, 미싱 따위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中山間 부락민들은 늦은 봄이 되면 무성한 미뻬쟁이를 뽑아다가 말려서 한 자 정도의 길이로 길게 동여 묶어 화심을 만들었다(圖70). 화심은 中山間 마을 사람들이 마소를 돌보러 나갈 때나 밭일을 볼 때 흔히 이용되는 불씨이다. 이 화심은 미뻬쟁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타는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불의 힘이 좋아 한두 자 정도의 화심이며 하룻동안 불씨를 유지할 수 있다.

본시 화심은 깨끗한 것이므로, 때에 따라서는 산에서 지내는 온갖 祭儀 때에 쫄 대용으로 제단에 놓아 향불로 피우기도 한다. 이 화심은 山野에서 불씨를 보존하는 데 다시없이 좋은 것이었다.¹⁴⁴⁾



〈圖 70〉 화심
(출처: 秦聖麒, 「濟州民俗의 멋 2」, p.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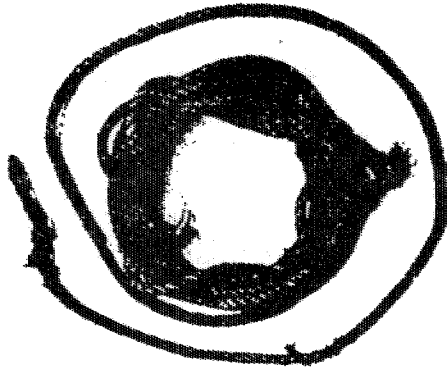
5) 총베

말총으로 끈 밧줄을 말한다. 말총이 물이나 습기에 오래 견딜 수 있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말총으로 끈 총베는 〈圖71〉 방목 중의 마소를 잡아낼 때, 돼지를 도살할 경우 묶는 일 등, 주로 큰 힘에 견디어 내는 일을 할 때 많이 쓰였다.¹⁴⁵⁾

144) 秦聖麒, 《濟州民俗의 멋2》, 悅話堂, 1981, pp.85~86.

145) 秦聖麒, 前掲書, pp.78.



〈圖 71〉 총배
 (출처: 樂聖麒, 「濟州民俗의 멋 1」,
 p.79)

6) 낭몽동이(긴 나무 막대기)

잘 휘어지는 윤노리나무로 만든 막대기로, 낭몽동이라고 한다. 길이는 자기의 허리춤 정도 내지는 키 정도의 길이이다.〈圖19,20,21,25,42〉에서 모두가 '낭몽동이'를 손에 들고 있다.

마소를 돌보러 나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는데, 군인이 총을 메고 전장에 나가는 것처럼, 이 낭몽동이 하나만 들면 마음이 든든해졌다¹⁴⁶⁾ 고 한다.

IV. 結 論

문헌 고찰, 유물 고찰, 古老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濟州島 牧者服, 즉 濟州島 中山間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였던 牧畜業者들과 관청 牧子 및 마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牧畜業者들의 牛馬를 돌보던 테우리들의 服飾을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牧者服의 종류는 머리에 쓰는 頭衣類, 곁에 덧 입는 表衣類, 봄·여름·가을에는 겹옷으로 입고, 겨울철에는 表衣類 안에 입는 上·下衣類, 足衣類, 기타 所持品으로 나눌 수 있다.

① 頭衣類는 가죽감티, 털벌립, 정당벌립, 대패랭이를 들 수 있다. 가죽으로 만들어 겨울철 방한용으로 쓰는 가죽감티는 蒙古의 유품이라 할 수

146) 김우항, (男, 1928年生)

있다. 털벌립, 정당벌립, 대패랭이의 모자골은 同一하며, 平涼子와 비슷한 형태이고 胡人들의 氈帽와 그 형이 같다. 털벌립은 소털로 만들어 비오는 날 주로 썼으며, 정당벌립은 정당으로 만들어 맑은 날만 썼던 고급품이었고, 대패랭이는 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男子뿐 아니라 女子도 썼다.

② 表衣類에는 裘衣의 전승이라 할 수 있는 가죽두루마기와 주로 비올 때 입는 도롱이가 있다.

가죽두루마기는 주로 개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보통 개가죽이 12장 내지 13장이 소요되므로 굉장한 고급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자랑으로 여겼고, 이 이상의 방한복은 없었다. 비오는 날에는 도롱이를 입게 되는데, 방수용일 뿐만 아니라 가죽두루마기를 마련할 수 없었던 牧者들에게는 방한용 表衣로도 사용되었다.

③ 上·下衣類에는 갈옷, 누비옷, 솜옷을 들 수 있다.

濟州島의 가장 대표적인 의복은 무엇보다도 감물을 들여서 입는 갈옷을 들 수 있다. 1年 내내 남녀노소 누구나 입었는데 아주 위생적이고 실용적이어서 근래까지 많이 입었으나, 지금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차츰 갈옷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갈옷중 홉으로 만들어져 위에 입는 것은 갈적삼, 아래에 입는 것은 갈중이라 하며, 우리나라의 저고리, 바지 형태와 같다.

갈옷 이외에 누비옷, 솜옷을 입었으나,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있는 사람만이 극히 드물게 입었는데, 이는 가죽두루마기가 방한복으로서 보온성이 우수하였기 때문이었다.

④ 足衣類는 버선형의 가죽보선(가죽버선)과 가죽신, 초신(짚신), 나막신 그리고 덧신형의 태왁(설피)이 있다.

가죽버선이나 가죽신은 무겁고 딱딱해서 의복재료로 부적합한 소가죽을 이용하였는데,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만 신을 수 있었다. 가죽버선은 소가죽 이외에 개의 발목부분의 가죽을 이용하여 만든 개발버선이 있으며, 주로 二合靴, 四合靴로 구성되어 있고, 발목부분은 무명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가죽신은 짚신과 형태가 같은데, 소가죽날과 감실을 이용하여 만든 감실신(짚신이라고도 한다.)과 타이어 바퀴를 바닥에 붙여 만든 국시신(타이어

신이라고도 한다.)이 있었다.

초신은 가장 많이 신었던 신종류로 밭에서 나는 벗짚인 산디짚으로 만들어졌고, 韓國 本土의 짚신과 형태가 같다.

비오는 날에는 주로 나막신을 신었는데, 韓國 本土의 것은 굽이 八형인데 반해 濟州島의 것은 뒷굽이 약간 안쪽으로 휘어진 엷어놓은 ㄷ형을 하고 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放牧중인 牛馬를 돌보거나, 겨울철 사냥을 갈 때 신었던 태왁(설피)은 濟州島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윤노리나무로 만들었다.

⑤ 기타 所持品으로는 도시락을 넣고 다니는 주머니인 약도리, 도시락에 해당하는 동고량, 물을 넣고 다니는 자라모양의 납작한 물병, 들녘에서 불씨를 보존할 때 사용되는 화심, 牛馬를 잡아맬 때 사용되는 총배, 군인이 총을 메고 전장에 나가는 것처럼 牛馬를 돌보러나갈 때 반드시 갖고 가는 낭몽등이가 있다.

牛馬場에서 얻어지는 말가죽은 의복재료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다만 실을 만들어서 바느질할 때 사용한 정도였고, 의복재료로 사용된 주된 가죽류는 가죽을 벗겨낸 직후 그대로 두면 크기가 작아지므로 의복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늘려서 건조시켰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돼지기름을 발라서 비볐으며, 보관시는 연기를 쉴 수 있는 곳에 두어 썩지 않도록 하였다. 이때 사용되었던 가죽류는 털이 붙어있는 상태의 것이었으나, 가죽버선을 만들 때 사용했던 소가죽은 털을 제거한 뒤 사용하였다. 이때 가죽류를 다루었던 사람은 모두 男子들이었다. 그러므로 가죽을 재료로 한 衣服類는 男子들이 직접 제작하여 그들만 입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牧者服은 濟州島의 대표적 노동복인 갈옷을 기본으로 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었던 가죽과 털을 재료로 한 衣服類와 드물게 방한복의 한 종류로 입었던 누비옷과 솜옷, 가난한 이들이 겨울철에 방한복의 일종으로 이용하였던 도롱이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牧畜業에 매우 적절하고 실용적이면서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혜로운 衣生活을 볼 수 있었다. 부족한 의복재료의 극복수단으로

濟州島 牧者服 研究

濟州島 자연환경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당, 억새, 윤노리나무, 산디짚, 감과 같은 재료를 적절히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조그만 크기의 가죽과 옷감도 버리는 일없이 모두 사용하는 합리성을 발휘하였다.

牧者服의 각 종류별 사용재료 및 형태의 樣式을 살펴보면 京樣式과 濟州樣式의 服飾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옷, 누비옷, 솜옷과 같은 上·下衣類 및 초신(짚신)은 형태적인 면에서 京樣式에 속하고, 이 중 갈옷과 염색방법은 濟州樣式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의 牧者服類는 濟州樣式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北方系·南方系 服飾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가죽과 털을 재료로 한 衣服類인 가죽감티, 가죽두루마기, 가죽발레, 가죽보신, 가죽신은 방한을 목적으로 한 北方系 服飾類에, 차양이 넓어 주로 여름철에 쓰는 정당벌립, 털벌립, 대패랭이와 같은 頭衣類와 나막신(굽이 얹어놓은 ㄷ자형에 가깝다.), 초신(짚신)은 南方系 服飾類에 넣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牧者服類는 갈옷과 정당벌립을 제외하고는 현재 입혀지지 않고 있으며, 갈옷과 정당벌립 또한 형태는 변형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료의 빈곤으로 牧者服의 종류를 조사·정리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牧者服 각 종류의 기원 및 변천과정, 그 제작방법, 그리고 유형의 성격 비교에 대한 보다 깊이있고 구체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濟州島 服飾 研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려된다.